DBT Magazine
2015 Spring 화승그룹 I Vol.38 봄호

돌아가다



화승그룹
HWASEUNG

Do Better Tomorrow

Reboot Myself 2015



2015 Spring vol.38 | 2015년 3월 15일 발행

발행인 현승훈
글·사진 DBT 사람들
기획·진행 화승그룹 회장실 박동호
화승그룹 홍보팀 김병호, 박치선, 심일욱
하이미디어 P&I 이영진, 이진우, 한수빈, 정윤정
편집·출판 (주)하이미디어 P&I(02-795-3364)
디자인 백선영, 장윤희, 이예슬, 이재면
사 진 NAVI STUDIO(02-511-7277)
일러스트 예슬리
헤어&메이크업 한국문화예술전문학교 뷰티예술학부
(지도교수: 송승연, 헤어&메이크업: 홍민지, 황혜민)
프로세스 하이테크컴
인 쇄 (주)키움프린팅
펴낸 곳 **발행처** 화승그룹(www.hwaseunggroup.com)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연산동) 장천빌딩 화승그룹 회장실
전화 051-850-7037, **팩스** 051-850-7001
E-mail iwsim9025@hsrna.com

자전거 협찬 : 제품명 CRS16
삼천리자전거 www.samchuly.co.kr 02-2671-3000



2015년 오욱진이

2014년 12월 15일은 제가 화승 사람이 된 날입니다. 집이 인천 송도라 남들보다 아침 일찍 나서며 오늘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설레는 화승인더스트리 영업관리팀 막내입니다. 제게 있어 자전거는 친구입니다. 익숙한 곳과 낯선 곳을 오가며 자신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힐링입니다.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하는 것, 그리고 스무 살 이후 부모님과 한 번도 여행을 가지 못해 제가 직접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모두 유럽여행을 가는 것이 스물일곱, 오욱진의 버킷리스트입니다.

1990년 오욱진으로 돌아가다

25년 전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세발자전거에 몸을 실었던 그 아이는 고등학생이 됩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제 삶의 재산인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가까워지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싶습니다. 사회공헌이 좋았던 대학 시절 '미소지킴이'라는 단체를 기획하고, 미소팔찌를 제작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각자의 아이템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했던 그 시절, 우리들은 다짐했습니다. 은퇴 후에 다시 만나, 그 시절의 사회공헌을 이어가자고...

和承가족에게 드리는 3月 **현승훈의 화담(和談)**

'현승훈의 화담(和談)'은
화승(和承)을 담는 직원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회장님의 경영 실천 의지가 담긴 편지글입니다. 2014년 6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국내외 전 계열사 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그룹과 그룹문화에 대한 평소 회장님의 견해가 오롯이 담겨있습니다.

소통(疏通)
춘내불사춘(春來不似春)의 날이 있기도 하나 기나긴 겨울 끝에 불어오는 3월의 칼바람 뒤에는 새로운 봄의 따스함이 불어올 거란 확신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맘때가 되면 항상 '새로움, 시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짙은 마른 가지에 어느새 순(筍)이 올라오고, 냉정하리만큼 차게 얼었던 강물이 다시 녹아 흐르는 것을 보면 저 또한 소생(疏生)하는 대지(大地)의 기운을 느끼곤 합니다.

이 땅은 '자신' 그리고 나 아닌 '모든 것'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상대와 생각을 나누며 그들과 통(通)하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한날은 문득 **소통**(疏通)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소통이 무엇이고, 나는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인가? 라는 반문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자신, 가족, 지인, 그리고 직장동료들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남의 생각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개인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은 늘 갈등을 안고 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은 감정만 남은 비판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더 양극화시키기도 하지요. 하나가 되지 않는 소통은 결국 힘을 합치지 못한 채 또다시 선입견과 불신을 낳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보는 이러한 모습 또한 진중하지 못한 불통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통은 그만큼 지키기 힘든 것입니다. 평소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고 꾸준한 수행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어떻게 언행 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방법이 달라지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며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신뢰**(信賴) 가득한 진심은 여러분을 **'소통 전문가'** 화승인(和承人)으로 만들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소통은 회사 발전의 첩경(捷徑)입니다. 굳건한 하나의 소통으로 힘을 합치는 화승인이 되길 바랍니다.

화승인이 가는 곳이 길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맑은 기운 가득한 2015년 3월,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5년 3월 2일
현승훈 S. H. Hyun

2015年 1月

근하신년(謹賀新年)
지난 한 해의 기억들을 추억으로 남기되, 부족한 부분에는 그것을 채우기 위한 준비와 함께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과 생각을 키우는 화승인이 되길 기원합니다.

2015年 2月

버킷 리스트(bucket list)
연초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며 지금껏 걸어온 길과 62년 화승의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인지 기록하고 실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CONTENTS

2015 Spring Vol. 38

Open day

04 현승훈의 화담(和談)

08 Open Your Life //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

바퀴 돌아가다

12 Interview 1 // 김치 명인 강순의

16 **화승 아카데미 1** // 2015 신입사원 교육 : 전설의 레전드

22 **화승의 속살** // 화승 서울 강남빌딩 사용설명서

26 Real Talk 1 // 팀장님이 알려주는 신입사원 가이드

30 Story Zip 1 // 나와의 약속, 버킷리스트

34 **오늘 또 새로운 화승** // 드론, 화승을 날다: 화승R&A·화승소재 항공 촬영

–

그때로 돌아가다

38 **화승 마인드** // 돌아가고 싶은 그때 VS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때

40 Interview 2 // 전국화승자랑, 화승R&A 김민경 대리

44 **화승 콜렉션** // 밴드 콜렉터, 화승R&A 김선미 대리

46 **그때 화승으로 돌아가다 1** // 화승으로 돌아가는 4개의 시간의 門

50 **그때 화승으로 돌아가다 2** // 화승의 그때 그곳, 당감시장

56 Story Zip 2 // 내 유년의 바이블, 만화책

60 Photo Essay // 나 다시 돌아갈래, 나의 근현대사

66 **동심 맛집** // 새파란 시절의 추억, 시뻘건 떡볶이 맛집

Do Better Tomorrow

www.hwaseunggroup.com

–

길을 돌아가다

72 Interview 3 // 10초 완성 10원 초상화 장재민 작가

76 Real Talk 2 // 잠시 멈추면 또 다른 길이 보인다

80 Story Zip 3 // 인연, 돌고 도는 이야기

84 **화승 아카데미 2** // 2015 화승 승진자 교육: 승진하고 발견한 연기 본능

88 **화승 아카데미 3** // 2015 화승 교육 로드맵

90 With Project // 2015 WATA 동계캠프

–

Hawseung Reports

94 화승에 이런 일이

96 그룹 뉴스

98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넌 뭘 하고 싶니?

‘돌아가다’라는 타이틀의
그룹사보 〈DBT〉 2015년 봄호 기획을 마무리한
어느 토요일 저녁, 오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돌아가고 싶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친구 하나가 묻습니다.
넌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어?
순간 머릿속이 텅, 멍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1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인생의 2막을 열던 서른,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에서
화승그룹 회장실 홍보담당 계장으로 입사했던 그때.
신발 회사로 기억되는 화승을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의 내실 있는 사업군과
20여 개의 국내외 계열사를 보유한
사람 좋은 화승으로 기억하게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벌써 10년.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화승을 신발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년의 궤적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순간, 그 지점으로 돌아가
오늘을 진단할 수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
지금을 비추어 본다.
그리고 새로운
해답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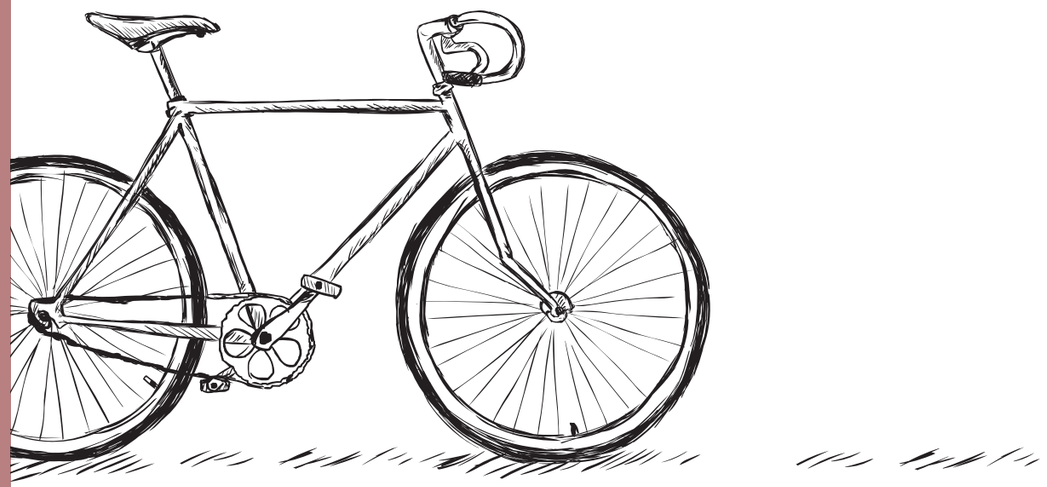
눈을 감고 시간 여행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순간으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
지금을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답을 찾습니다.
국내외 15,000여 명의
화승 사람 모두의 가슴에서 입으로,
화승에 대한 좋은 소리가 이어지고, 퍼지면
그것만큼 훌륭한 홍보 전략은 없다고 말입니다.

같은 자리를 맴도는 쳇바퀴를
내일을 향해 달리는 바퀴로 바꾸고,
그때 화승으로, 그 시절로 돌아가
오늘을 사는 힘을 더하고,
바쁠수록 길을 돌아가는
세 가지의 돌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는
2015년 화승의 봄입니다.
그때로 돌아갔다면 오늘로 다시 돌아오세요.
내일로 함께 가야 하는 당신이
화승의 봄이니까요.

바퀴
돌아가다

같은 자리를 맴도는 쳇바퀴를
앞을 향해 달리는 바퀴로 바꾸다
함께 달려가는 톱니바퀴로 바꾸다

삶을 축제로,
축제를 일상으로





시계는 잘도 도네 돌아가네

Editor 한수빈 + Photo 류병문

김치 명인 강순의

봄이면 나물 뜯어다 참기름 솔솔 뿌려 밥상에 내고, 가을이면 일 년 내내 먹을 김장 김치를 담그며 살았다. 결혼 후 매일 비슷한 사계절을 마흔여덟 번이나 돌고 도는 동안 보드랍던 처녀의 고운 손은 성한 곳이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그 세월을 견뎌낸, 마침내 김치 명인으로 우뚝 선 강순의를 만났다.

종갓집 종부의 시집살이가 고추보다 맵더라

오죽했으면 '고추 당초 맵다 하나 시집살이만 할까 보냐'라는 말이 있을까. 친정어머니의 손맛 덕분에 남편 얼굴도 모르고 덜컥 나주 나씨 종갓집 맏며느리가 된 강순의의 시집살이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은 직장 탓에 서울에서 지냈기에 과부 아닌 과부로 살아야 했다고.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어. 다만 내가 종갓집의 음식 맛을 제대로 전수받아서 남편 곁으로 가길 원하셨지. 그때부터 시댁에 혼자 살면서 음식 배우느라 고생했어."

식구 많은 종갓집에서 새댁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흘러갔다. 아침 치우면 점심, 돌아서면 저녁이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고, 어찌나 피곤한지 불 앞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자신의 코 고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고는 했다. 그마저도 가을부터는 김장 준비를 하느라 눈 붙일 틈도 없었다. 15가지가 넘는 종류의 김치를 담그려면 몇 백 포기의 배추는 예사요, 쪽파, 갓, 마늘, 생강 등 재료 손질도 만만치 않았다.

"아이고 말도 마, 살림이 어찌나 큰지 이 작은 몸뚱이로 한복 시커메진 것도 모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빴다니까. 명절이나 제사 땐 또 얼마나 손님이 많이 오는지, 한 달 전부터 김치며 나물이며 열 가지 이상은 새로 담가야 했어. 떡과 한과는 쌀을 몇 가마씩 찧어 준비했고, 많이 쓰는 것들은 아예 짝으로 사다 쟁여 놨지. 힘들었냐고? 힘들 시간이 어디 있어!"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시댁에서 8년을 지내고 나서야 겨우 서울로 가도 좋다는 시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졌다. 그러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서울살이는 녹록지 않았다.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온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완이 없던 탓에 번번이 쓴맛을 봐야했기 때문이다.

"아들 셋을 먹여 살려야 하니 나라도 나가서 뭐라도 해보자 싶었어. 풀빵, 번데기, 과일, 엿, 땅콩까지 안 해 본 장사가 없을 정도야.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날 벌어 그날 쓰니 남는 게 없데. 아들들은 또 어찌나 잘 먹는지, 한창 클 나이에 안 먹일 수도 없고…."

그러던 중 누군가에게서 '폐백 이바지를 하면 괜찮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시어머니께 전수받은 종부의 솜씨를 제대로 보여 줄 기회였다. 밤새 불린 쌀에 모싯잎 가루를 빻아 정성스레 떡을 빚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의 방법으로 김치를 담가 이바지함에 넣었다. 한껏 치장한 다른 폐백 음식에 비해 예쁘지는 않았지만 시골 종부의 '게미진 손맛'은 금세 입소문이 퍼졌다. 특히 고추씨를 담뿍 넣은 아삭한 김치는 따로 구매할 수 없겠냐는 문의가 빗발쳤다.

"원래 폐백 이바지에 김치랑 밑반찬은 안 넣어. 나는 어차피 애들도 먹여야 하니까 집에 남길 요량으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토속적인 게 통했나 봐. 그렇게 몇 년 해서 집도 옮기고, 살림살이 좀 나아졌지."

일이 술술 잘 풀리니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김치 강의 요청도 들어왔다. 김치 명인 강순의로서의 인생 제2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매일 김칫물에 손끝을 적시는 마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한 강순의 명인의 집 앞마당에는 저마다 다른 속을 품은 장독들이 줄지어 있다. 계절 따라 봄이면 민들레, 냉이, 달래로 짠지나 김치를 담고, 여름엔 열무로, 가을이면 갓이나 유채로 항아리를 채운다. 조금 짬이 나는 겨울에도 강의 준비로 하루가 멀다고 배추를 절구니 그녀의 손끝엔 김칫물 마를 날이 없다.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 절인 배추를 사다 쓰는 법이 없어. 본디 배추라는 게 절인 정도에 따라 김치 종류도 달라져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맛도 없고 군내가 나."

시할머니에게서 시어머니로, 다시 강순의 명인에게로 전수된 김치에는 가문의 전통과 명인의 고집이 오롯이 담겨 있다. 그것을 잘 알기에 긴긴 세월 동안 옛 방식을 지켜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듯 작년 겨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식품 명인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그녀는 김치 명인이 아닌 인생 선배로서 젊은이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한 가지를 하면 끝까지 해야 해. 한 우물만 파야지. 꾸준히 노력하고 고생하다 보면 반드시 빛을 볼 테니까."

강순의 명인은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서 보란 듯이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강순의표 김치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는 그녀. 종가의 손맛을 널리 알리는 그날까지 여전히 명인의 손은 바삐 움직일 테다.

〈DBT〉 '카더라 통신'

내년 신입들에게 알려주는 올해 신입들의 전설의 레전드

부제 : 전설은 돌고 도는 거야.

'우리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전설의 레전드. 군대를 가든 병원을 가든 어디나 하나씩 있다는 '카더라 통신', 여기도 있다. 2015년 1월, 경주 드림센터에서 진행된 9박 10일간의 화승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 2016년 신입사원들에게 미리 소개한다. 믿거나 말거나.





전설의 시작?

교육 첫날은 이례 없이 북적북적했다고 〈DBT〉 카더라 통신이 전했다. 조금 일찍 수시채용으로 입사한 인원을 비롯해 공채 신입까지 무려 70명이나 되는 청년들의 첫 만남은 어색, 웃음, 눈치, 긴장 등 다양한 감정들로 소리 없이 대강의장을 가득 메웠다고 한다. 아직은 술살이 덜 올라서 그런가, 도촬(?)한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목 끝까지 넥타이 잡아당긴 비즈니스 정장의 당당한 모습이 생각보다 괜찮다. 특히 이번 신입사원 교육은 비록 남탕급 비율이었지만 '여신' 전지현으로 칭송받던 직원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그런데 분명 신입 여직원은 두 명이었는데 여신은 보이지 않았다. 미스터리다.



화장실 눈물의 전설?

눈부신 구두광을 자랑하던 오리엔테이션의 패션왕 타임도 잠시, 연수복으로 환복 후 신입사원들의 9박 10일간의 일정은 '바쁨' 그 자체였다. 눈곱도 떼지 못하고 시작된 꼭두새벽의 구보를 시작으로 쉴 새 없는 강의, 특히 신사업을 기획해보았던 3일간의 조별 토론은 무한열정을 내뿜는 신입사원들에게도 쓴웃음이 절로 나오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쓴맛 한 번 제대로 봤으니 마지막은 달콤해져보자며 불살랐던 토론이 끝나고 대망의 조별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있던 날. 허나 이날 배정된 심사위원은 각 계열사들의 정보에 빠삭한 그룹 회장실의 대선배님들이다 보니 폭풍 질문이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열심히 준비한 발표가 끝나 속은 후련했다만 무시무시한 질문 공세에 매운맛을 톡톡히 보고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다는 후문이다.











다이아몬드 스텝의 전설?

신입사원 교육은 말 그대로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신입사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화승그룹이 추구하는 '나눔 경영' 또한 직원으로서 지녀야 할 지속가능경영의 핵심가치다.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필수 코스, 경주 나자레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신입사원들에게 화승그룹의 나눔 경영 활동 취지를 알리고 체험하는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

평소 같았다면 꿀 같은 휴식을 즐기던 주말이었겠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70명의 직원들은 시설 노력봉사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한바탕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신입사원들이 직접 구매한 매니큐어와 마사지 크림으로 어르신의 고운 손에 빛을 내어 드린 후, 노래방 기계와 함께 춤판을 일으켜 재롱 떨어드리니 평소 휠체어에만 앉아계시던 할머니가 너무 신이 나서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셨다는 소문도 들렸다.

지워지지 않는 얼룩의 전설?

어디에나 복병은 있다. 빡빡하지만 의외로 스마트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을 것 같았던 교육 일정. 그 사이엔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악마의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룹교육팀은 70명이 한 목소리를 내라며 전문 훈련 강사까지 섭외해 신입사원들을 이리저리 굴렸다고 한다. 심지어 어깨동무에 수없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시키며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즐거운(?) 기합을 받고 나니 산을 타라네? 신입사원들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움켜쥐고 삐질삐질 땀까지 흘려가며 도착한 산 정상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그래도 뭐 스트레스는 날라갔단다.

복병은 여기서 사라지지 않았다. 70명의 하나 되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룹교육팀은 70명의 하나 되는 '몸짓'을 보고 싶어 했다고 한다. 연수 과정이 절반이 남았을 무렵부터 시작된 오밤중 비주얼 퍼포먼스 연습. 70명의 신입사원들은 새벽 구보하랴, 강의 들으랴, 몰려오는 졸음을 없애기 위해 커피를 1인 평균 43잔을 마시고, 발바닥에 물집이 수백 번 터져가며 맹렬하게 비주얼 퍼포먼스를 연습했다.



신입사원 교육의 마지막 밤, 뮤지컬·댄스·난타 등 화려한 조명 속에서 펼쳐지는 70명이 하나가 된 퍼펙트한 공연으로 각사에서 초청된 대표님과 선배님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힘든 과정을 동기들과 함께 해냈다는 벅찬 감동에 20기가 흘렸던 눈물이 공연장 카펫에 흘러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풍문도 있다.

전설은 돌고 돈다. 가지각색의 사람이 모여 가지각색의 이야기를 하지만 화승의 전설에는 언제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전설 속 주인공은 모두 현재의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 들어올 신입사원들에게도 전설을 미리 알려주겠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전설의 레전드 70인

부제 : 2015년 화승그룹 신입사원

장장 9박 1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비로소 화승그룹을 이끌어갈 전설의 레전드로 거듭난 2015년 신입사원들.
다소 실물과 다르더라도 이해 바란다. 신입사원 교육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증거이니까.



화승 R&A 개발연구팀 **고철희**
화승 R&A 구매원가팀 **권순욱**
화승그룹 회장실 **김경우**
화승R&A FL 선행설계팀 **김금석**
화승R&A 회계팀 **김민수**
화승R&A FL설계팀 **김병주**
화승R&A SL생산관리팀 **김보성**
화승R&A 영업관리팀 **김영탁**
화승R&A FL생산관리팀 **김재만**
화승R&A FL생산기술팀 **박선민**
화승R&A 평가해석팀 **백광현**
화승R&A 부품원가팀 **백승하**
화승R&A 구매개발팀 **서성환**
화승R&A 해외물류팀 **성상현**
화승R&A 부품원가팀 **손한길**
화승R&A 구매팀 **안정호**
화승R&A 구매원가팀 **이기혁**
화승R&A 설비기획팀 **이세훈**
화승R&A SL영업팀 **이재혁**
화승R&A 부품원가팀 **이흥수**
화승R&A FL생산팀 **정성민**
화승R&A FL생산팀 **정종현**
화승R&A SL설계개발3팀 **정지훈**
화승R&A SL생산기술팀 **차동성**
화승R&A M-PJT **홍원진**
화승소재 TPE개발영업팀 **김기재**
화승소재 SL재료연구팀 **박재범**
화승소재 생산지원팀 **손지원**
화승소재 해외영업팀 **정순우**
화승소재 SL재료연구팀 **한창욱**
화승인더스트리 PVM팀 **김근형**
화승인더스트리 소재연구팀 **김대호**
화승인더스트리 고객만족팀 **김민수**
화승인더스트리 OPP팀 **김태영**
화승인더스트리 총무팀 **손재광**



화승인더스트리 경리팀 **어지훈**
화승인더스트리 품질관리팀 **연규민**
화승인더스트리 영업관리팀 **오욱진**
화승인더스트리 경영기획팀 **이건욱**
화승인더스트리 전략기술팀 **이상현**
화승인더스트리 경영기획팀 **이찬욱**
화승인더스트리 기공연구팀 **장윤재**
화승인더스트리 PET팀 **정재원**
화승인더스트리 영업1팀 **조한삼**
화승인더스트리 가공연구팀 **최현묵**
화승엑스윌 호스시트사업2팀 **변성화**
화승엑스윌 호스시트사업2팀 **송민석**
화승엑스윌 특수물설계파트 **신성환**
화승엑스윌 특수물해외영업파트 **유민준**
화승엑스윌 벨트사업1팀 **조재진**
화승엑스윌 벨트사업2팀 **조준휘**
화승엑스윌 기술개발팀 **최녕기**
화승네트웍스 통합구매팀 **강명진**
화승네트웍스 경리팀 **김빈규**
화승네트웍스 통합구매팀 **윤미연**
화승네트웍스 통합구매1팀 **조성민**
화승네트웍스 통합구매2팀 **조재훈**
화승네트웍스 통합구매1팀 **최슬기**
화승T&C SL생산팀 **허재영**
화승비나 생산부문 **김현철**
화승비나 개발부문 **박동준**
화승비나 개발부문 **서은관**
화승비나 개발부문 **손예지**
화승비나 개발부문 **이태경**
화승비나 생산부문 **전봉근**
화승R&A SL설계개발1팀 **이상필**
화승R&A SL설계개발2팀 **남동식**
화승R&A SL설계개발3팀 **성지수**
화승R&A SL설계개발팀 **이현수**
화승R&A 품질본부 **김운배**

화승, 어디까지 가봤니?

화승 강남빌딩 사용 설명서

(feat. 오욱진)

Writer 박치선 그룹홍보팀 대리 + Photo 류병문



입사 첫날, 북적거리는 강남역으로 나와
높은 빌딩을 구경하며 어리바리하게
강남빌딩 앞에 도착한 것이 기억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이내 흥분을 지그~시
누르고, 조심스레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훈련소 과정을 끝내고 자대 배치를 받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
이리저리 인사를 하고, 업무 파악하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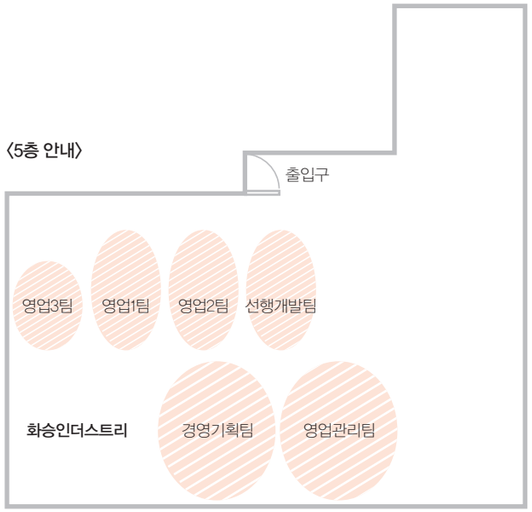
空間 1. 서울 사무소 5층

'신입사원'이라는 타이틀 아래 궁금한 것도 많은 나.
문득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그 업무는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숨 가쁜 현장이 코앞에 있건만
입사 후, 항상 내 자리를 지킨다는 신념 아래 타 부서의
공기는 맡을 수가 없었다. 잠시 쉬는 시간을 틈타
우리 팀의 수장, 최진길 팀장님께 화승 강남빌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렸다. "여긴 영업팀이고, 저~긴
관리팀이다. 뭐하는 곳이냐면..." 친절히 그려가며
설명해 주시는 팀장님. 약간의 긴장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욕심내지 말고, 예의 바르게 그리고 넓은 시야를
가지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신다.

5층 화승인더스트리 서울 사무소에는 6개의 팀이
존재한다. 영업1팀과 2팀에서는 화승인더스트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마케팅 관리 그리고 관련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업1팀은
내수영업, 영업2팀은 수출 담당이다. 영업3팀은
화승인더스트리의 주요 제품인 통기성 필름과 태양광
필름의 내수 수출 관리를, 영업관리팀에서는 매출,
생산관리 및 채권, 어음 관리를 한다. 선행개발팀은
사업을 계획하고 상품 수주, 발주는 물론
화승인더스트리의 신사업이 될 신규 제품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그리고 경영전략 및 환경 분석
및 조사, 대외 홍보 관리라는 중책은 경영기획팀이
담당한다.
'내가 머무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화승인더스트리의 서울 사무소가 한눈에
들어왔다. 다른 선배들에 견줄 수 없는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경험하고 나니
업무 플로우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물론 아주 조금... 참, 5층에 구비된 커피 맛은
그야말로 '꿀맛'이다.



〈5층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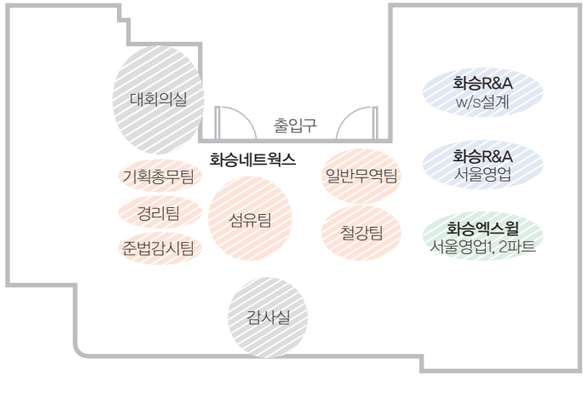


空間 2. 서울 사무소 4층

강남 서울 사무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룹의 3개 계열사를 한 공간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덧 화승 사람의 본능에 따라 화승네트웍스, 화승R&A, 화승엑스월이 만나는 공간인 4층으로 이동했다. 화승네트웍스 기획총무팀 김은민 사원이 반겨준다. 친절한 김은민 선배님을 따라 4층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4층은 프런트데스크를 기준으로 크게 3개의 소 공간으로 나눠져 있다.

화승R&A 서울 사무소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 및 GM코리아의 SL 설계 업무를 대응하고 있고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의 자동차 내부에 사용되는 호스 내수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와우.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자동차 회사의 이름을 들으니 오히려 귀에 더 쏙쏙 들어온다. 화승R&A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다.
화승R&A에 이어 바로 옆 공간은 화승엑스월을 위한 공간이다. 서울영업1파트는 산업용 컨베이어 벨트의 서울 경기권 내수 판매, 또 용접용 가스, 유류, 화학제품 등의 유체를 이송하는 산업용 호스와 바닥 충격 완화, 가스켓, 방수시트 용도의 고무판제품을 서울, 경기, 충청권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서울영업2파트는 해양 선박의 부두 접안, 계류 시 선박과 항만 구조물 등을 보호하는 특수물(펜더) 제품의 서울, 경기, 충청권 내수영업을 하고 있다.

〈4층 안내〉



시트? 가스켓? 펜더? 점점 전문 용어가 나오니 갑자기 집중력이 흐려지는 듯 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곳으로 이동! 화승네트웍스는 화승그룹의 5대 사업군 중 종합무역을 담당하는 곳이다. 섬유팀은 국내외 원사 및 원단을 미국, 남미,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철강팀은 철강제품을 국내 제강사에 납품하는 업무, 그리고 일반무역팀은 수입육, 식량, 사료,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 및 판매하고 있다.
종합무역이라고 하여 딱히 떠오르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었는데 식품까지 수입, 판매한다는 말에 화승네트웍스의 종합무역 사업의 광범위함에 놀라고 말았다. 준법감시팀? 생소한 단어에 들여다 보니, 투명한 경영과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왠지 법, 경찰, 판사, 검사의 이미지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나와는 급 멀어지는 느낌(?)에 갑자기 두 손이 모이며 공손해진다. 그리고 이 화승네트웍스 모든 팀의 업무와 관련된 총무, 기획 등을 하는 기획총무팀, 자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리팀이 존재하고 있다. 참 많기도 많다. 신입인 내가 이해하기에 벅찬 이곳 화승네트웍스 서울 사무소.



화승 空間

강남빌딩 내에 각자 다른 계열사가 함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니! 서울의 화승을 쉼 없이 둘러보며 그 시간이 전혀 헛되게 느껴지지 않았다. 입사 전, 구직생활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다. 가끔 지날 날을 떠올리면 웃음이 나기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지만 지금은 화승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바삐 움직이는 강남대로의 사람들을 보며 더욱더 채찍질을 하게 된다고나 할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는 '호기심'이었다면, 이젠 굳건한 '확신'으로 회사에 필요한 일원이 되겠다는 목표가 다져졌다.
내가 머무는 이곳, 화승 공간(空間). 훗날, 오늘의 크고 다양한 업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나 오욱진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달리리라.
마지막 팁! 강남빌딩 지하 1층에는 타 빌딩 근무하시는 분들도 찾아올 만큼 맛있는 식당들이 즐비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완생을 향한 페달을 밟아라!

팀장님이 알려주는 신입사원 가이드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 그가 완생으로 완벽하게 거듭날 방법,
우린 아직 미생이라는 오 차장을 완벽히 홀릴 수 있는 실전 테크닉.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상 업무 중에서 깨알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창하지 않은 몇 가지 팁을 공개한다.



아악, [팀장놈] 폴더만은...!!

당신은 지금 휴가 중이다. 이때 걸려온 상사의 전화. 당신의 컴퓨터에서 급하게 4월 예상 매출 실적을 찾아야 한단다. 전화로 해당 파일의 위치를 불러주기 시작한다.
"우선 '내 문서' 들어가시고요. 거기서 [내가 최고야] 폴더 클릭하시고... [팀장놈] 폴더에 [4월 예상_짜증나] 열어보시면 됩니다. 데헷~"
이게 무슨 상황인가. 폴더는 최대한 담백하고 업무에 맞게 정리하고, 웬만하면 바탕화면에 문서를 저장하지 말자. 문서 파일만 가득한 바탕화면은 정말 '극혐'이다.
4월 매출 예상 실적에 대한 파일은 [매출\매출실적\2015년\상반기\4월\예상]이라는 폴더 순서대로 정리해놓고 파일이름도 '2015년04월매출예상실적.ver4/11기준'이라고 하면 나중에 찾기도, 정리하기도 편하다.
폴더명과 파일명 작성은 당신의 업무능력을 말해준다. 파일 하나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검색창을 켜고 하드드라이브를 다 뒤져보기에 우리는 너무 바쁘지 않던가. 꼭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 많다고 투덜대더라.



미생의 질문, 완생의 질문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잘 모르는 경우 미생은 이렇게 질문한다. "이거 어떡해요?"
완생은 이렇게 질문한다. "A와 B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을까요?"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는가? 만일 병아리 감별사가 미세한 차이로 병아리를 감별하듯 두 질문의 미묘한 차이를 느꼈다면 당신은 완생이다.
미생의 질문은 "난 아무것도 모르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나에게 답을 가져와 주세요.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라는 숨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난 고민하기 싫어요."라는 뜻이다.
완생의 질문은 같은 상황이라도 "이것저것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제가 생각했습니다. 혹시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대안이 미숙해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완생의 질문을 받는 상사는 후배가 어딘지 모르게 기특하다.
그래도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은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금지어가 있다. '어떡해요?'다.
대신 '이것 중에 어떤 것이...'를 연습하도록 하자. 'How' 대신 'Which'로 시작되는 질문이 당신을 완생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꺼진 SNS도 다시 보자

메신저와 SNS를 통해 팀장은 당신의 퇴근 후 사생활까지 지켜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딱 하나. 험담하지 말자는 것이다. 회사나 상사, 동료에 대한 불만은 속으로 삭히자. 메신저의 상태 메시지에도 '힘들어ㅠ.ㅠ', '여행 가고 싶어', 'ㅌㅈ ㅆㅈㄴ'와 같이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삼가자.
메신저만 단속한다고 끝이 아니다. SNS 포스팅 타이밍도 중요하다. '팀장님 몸이 아파서 오늘 휴가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연락해 온 직원이 그 날 저녁 '맛집에 왔어염!' 인증샷을 올리고 '좋아요'를 받는다거나, 오늘내일하시던 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며 급하게 휴가를 낸 직원이 '주말을 이용해서 홋카이도!' 라며 온천사진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바탕화면에 영혼 불어넣기

회사 컴퓨터 바탕화면을 일본만화 여자 캐릭터나 핫한 여배우의 화보 사진으로 해놓는 직원이 있다.
…너무나 오타쿠스럽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직원들은 멋진 수입 스포츠카를, 미혼자들은 연인과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떡하니 올려놓기도 한다. 상사들은 보고 있다. 당신이 컴퓨터에 어떤 바탕화면을 깔아놓았는지를. 사랑에 빠진 연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상사는 어떨까? 평소엔 아무 말 안 하다가도 혹시 업무상 실수라도 하게 되면 '맨날 애인 생각만 하니까 실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인신공격성 질책을 할 수도 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가. 디스플레이로 인한 오해는 애초에 없애자. 바탕화면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당당하게 밝혀보도록 하자.
'나는 애사심이 투철합니다'라는 이미지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회사의 로고를 추천한다. 부서 사람들과 팀장님을 모시고 찍은 단체 사진도 바람직하다. '나는 도전정신이 투철합니다'라는 이미지를 원한다면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 좋다.
자, 응용문제. '나는 애사심과 도전 정신이 투철합니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다면? 회사 사람들과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깔자. 소품을 넣고 싶다면 회사 로고가 박힌 현수막이나 깃발을 들면 좋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다면 무난하게 기본 바탕화면으로 가고.

완생의 회식

다들 집에서 곱게 자라온 귀한 집 자식들이다. 그런데 막내라는 이유로 회식에서 고기를 구워야 하는 신세가 서럽다. 혹시 내가 여자라서, 혹은 일을 잘 모르니 고기나 구우라고 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아니다. 막내니까 하는 당연한 일이다. 다음번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혼을 담아서 고기를 굽자.



보너스 1. 삼겹살을 구울 때의 적정 개수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인원수 X 1.5개. 이 개수의 고기가 불판 위에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4명이 한 테이블에 있고 당신이 막내라면 계속해서 불판에 6점의 삼겹살이 익어가도록 신경 써야 한다. 물론 앞 사람, 옆 사람의 소주잔이 계속 잘 채워져 있는가를 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고. (새로운 막내가 올 때까지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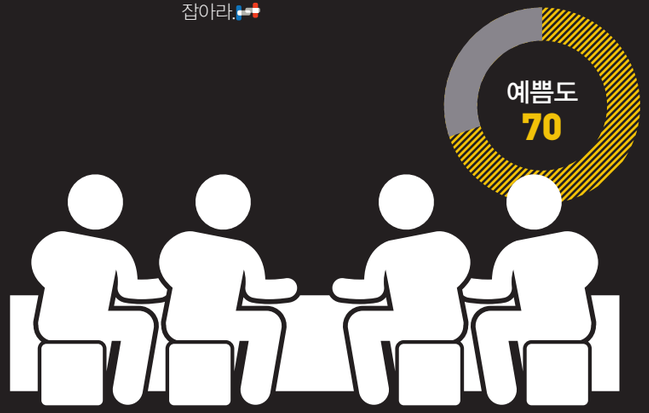
보너스 2. 회식의 명당자리

• 술을 싫어하는 사람

출입구와 최대한 가까운 자리.
출입구 앞은 '이모'를 부르기 위해 합법적(?)으로 자리를 이탈해도 되는 자리다. 혹시 이모가 너무 바쁘면 직접 부르러 가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기에 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좋은 자리가 아닐 수 없다.
혹시 그 자리에 나보다 고참이 앉아있다면 차선책으로 팀장님과 같은 라인의 왼쪽 오른쪽 끝자리에 앉아보라. 거기서 약간 뒤로 앉아라. 휴식의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맞은편에 누가 앉게 될지 미지수라는 게 함정.

• 팀장님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

팀장님의 좌청룡 우백호 자리.
팀 회식은 서열상 1위인 팀장님이 가운데 앉고 서열 2위인 차장님이 그 맞은편에 앉게 된다. 팀장님 옆의 좌, 우 한 자리씩은 그날그날 바뀌게 되는데, 특별히 직급에 따라 구분되지는 않는다. 랜덤이 가능해 과감하게 당신이 앉아도 된다. 그날 컨디션이 좋거나 업무시간에 팀장님께 칭찬을 들었다면 그 자리가 기회다. 그날 최대한의 눈도장을 찍어두면 다음 회식 때에는 덜 주목받는(?) 자리에 가도 된다. 그러니 기회가 온다면 기필코 잡아라.💉



나와의 약속, 버킷리스트

어느 한 날, 파도에 힘없이 휩쓸려가는 모래성을 바라보다가
옛말이 되어 버린 나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그렇게 굳게 작심한 약속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운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문다.
지난날의 망상은 뿌연 담배연기에 날려 보내고,
새롭게 밀려오는 파도에 희망을 싣는다.
나는 오늘도 도전한다. 어떤 일을 정해 놓고
어기지 않기로 다짐하는 일을 우린 약속이라 부른다.
그 약속이 바로 나의 버킷리스트다.

화승비나 리복 개발 김윤석 과장

내가 직접 만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건축학도였던 한때의 꿈을 이루어 보고 싶다.
내가 만들어낸 공간을 느끼며 살아 보고 싶다.

아들과 자전거로 전국 일주

언젠가 아들과 함께 긴 여행을 하고 싶다.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을 여행을
하며 서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과 사귀기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싶다. 함께 교류하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넓은 세상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것 찾기 그리고 그것 책으로 쓰기



인생을 살다가 발견할 그것,
나만의 방식으로 책을 써서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소통하련다.

피아노 배우기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멋진 곡을 연주해 보이겠다.

화승공조 생산관리팀 서승덕 대리

연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



복권당첨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누구나 한 번씩 부유한 삶을 꿈꾸기 마련이지.

체중 10kg 감량

건강 관리 및 균형 잡힌 몸매는 평생동안 목표가 될 것 같다.

가족과 여행

기회가 있을 때 자주 가족들과 여행하고 싶다.

동호회 가입

회사는 물론 회사 밖의 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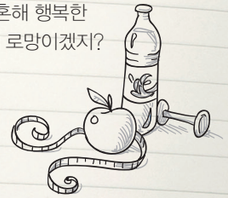
화승네트웍스 기획총무팀 김은민 사원

장학금 받기

예전부터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배움'에 대한 갈증 해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나의 도전.

유채꽃 피는 제주도에서 남편과 함께 스쿠터 여행하기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건 세상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겠지?



11자 복근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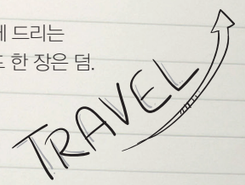
비키니 한 번 입어보자 쫌!
이 저주받은 몸뚱이야!

이유 없이 지인에게 선물하기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했던 내 주변인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고
싶다. 받는 기쁨보다 더 큰 나눔의 기쁨.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기

한평생 날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께 드리는
아주 미약한 선물, '여행'. 신용카드 한 장은 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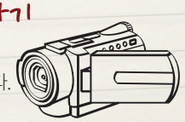
화승R&A 글로벌지원팀 이지환 대리

일본어 기초회화 배우기

일본어로 일본 고객과 대화하며 업무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었으면.

아들 돌잔치 동영상 직접 제작하기

이지환 Jr. 모습을 내 손으로 직접
스케치해서 그 영상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기

자식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바람.

운동으로 복근 만들기

스스로 자신감도 되찾고, 관리하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 싶다.



가족을 위한 건강요리 레시피 50가지 만들기

내 가족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
나의 정성이 듬뿍 담긴
식단을 준비해야지.







화승,
잘 돌아가다

1978년 동양화공으로 첫발을 내디딘 화승R&A. 지금은 자동차 부품으로 세계 속을 누비는 글로벌 기업으로 더 큰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중국 태창, 북경, 인도 첸나이, 미국 앨라배마, 터키, 멕시코에서 또 다른 거점을 마련해 화승의 미래 청사진을 밝혀주는 화승R&A. 바로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화승소재 또한 어떠한가. 고무로 시작해 고무를 뛰어넘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화승소재는 고무의 감성을 재현하는 신소재로 대한민국 소재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화승R&A와 화승소재를 휘휘 돌아오는 길. 더 높이, 더 멀리, 더 자세히 잘 돌아가는 화승을 목격하다.

드론,
화승을 날다

한 겨울, 한적한 오후, 드론을 챙겨 떠난 양산. 삽량천 아래에서 녀석을 쏘아 올린다. 유유히 하늘을 가르며 나는 새 같은 녀석은 화승R&A와 화승소재를 단숨에 스캔해 눈 속에 담아낸다. 아직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곳 하늘에서 내려다본 화승. 프로급 포토그래퍼 화승엑스월 관리팀 김명섭 과장과 홍보팀이 함께 떠난 드론 비행 촬영. 함께 하늘을 날며 오늘 또 새로운 화승을 만나는 비상으로 초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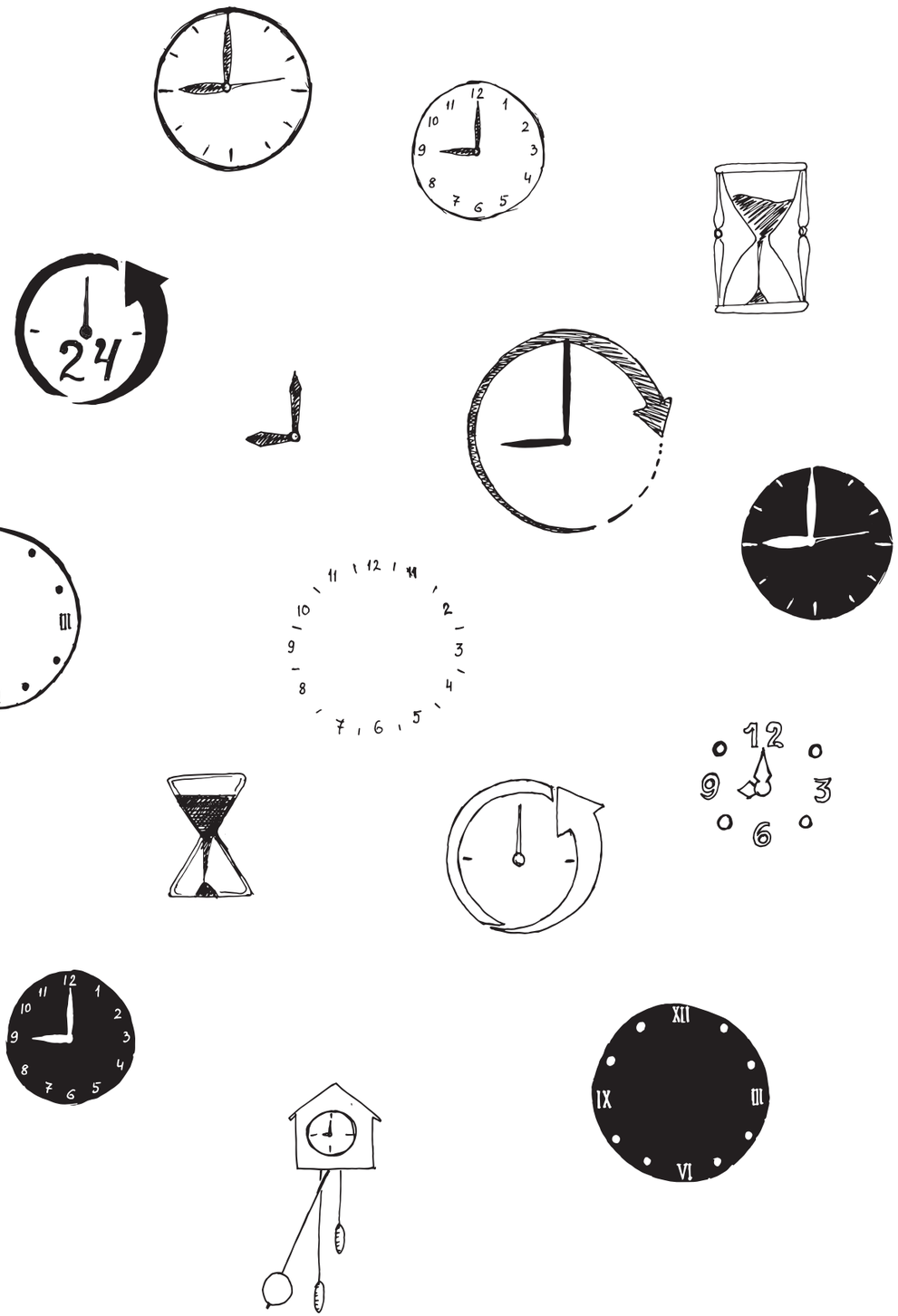




그때로 돌아가다

그때 화승으로 돌아가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다

어제에서 찾은 답으로
오늘을 사는 힘을 더하다



돌아가고 싶은 그때 VS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때



첫 아이를 품에 안은 그 순간,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엄마 뱃속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나오지 않을 테다! 하하하!

육군훈련소 조교 시절,

각개전투 훈련장에 비는 쏟아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도 쉬는 시간에 화장실 뒤에서 훈련병 몰래 피우던 담배 맛은 정말 잊지 못한다. 정말!

목표 없이 지내서 불안했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던 대학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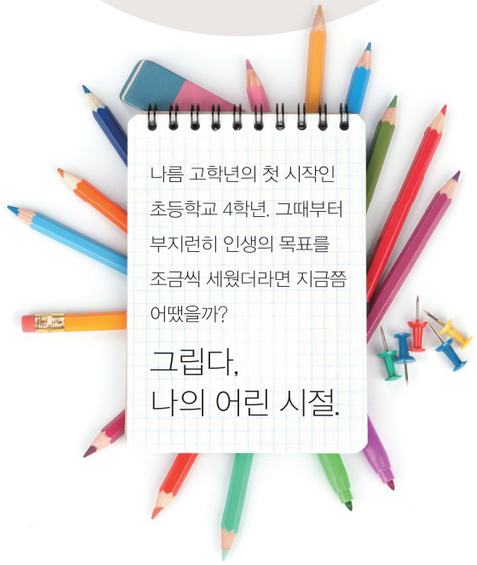
그 소중한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다리 부상을 당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다시 그라운드를 뛰고 싶다.





나름 고학년의 첫 시작인 초등학교 4학년. 그때부터 부지런히 인생의 목표를 조금씩 세웠더라면 지금쯤 어땠을까?

그립다, 나의 어린 시절.

여고 시절만 있나?

내겐 남고 시절이 있었다. 무엇을 해도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었다.

자신이 걸어온 삶에 대해 한 번씩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붙잡고 싶을 만큼 그리운 시절도 있고, 굳이 떠올라 얼굴을 붉게 만드는 기억도 있겠지요. 하지만 좋든 나쁘든 그 순간순간의 조각들은 나의 일부입니다. 화승 사람들의 돌아가고 싶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때는 언제일까요?

술에 취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날 밤, 그 기억,
그 부분만 가위로 싹둑
자르고 싶다, 진심으로.



고등학생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1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입시 공부에 다시는 매달리고 싶지 않으니까.



군 제대 후 자유를 만끽하겠다며 합리화했던 백수생활은 다시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 시절은 나에게 서든어택의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했지. 캬캬캬~

사랑했던 그녀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추태를 부린 나. 생각하기도 싫다.



그런데…. 잘 사니? 결혼했더라! 내 기억을 지울 수 없다면 네 기억을 지우고 싶어!



많은 사람과 어울렸던 모임. 그리고 적막함을 깬 내 엉덩이의 울림. 사람들의 미묘한 표정. 반강제로 부랴부랴 서둘러 나갔었지.

그 뒤로 난 깔끔하게 모임을 탈퇴했다.

중학교 시절. 왜 그리도 사고를 치고 다녔는지.

정말 부끄럽다.

그때 그 투자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결심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쉽고 아까운 내 돈!



Editor 이영진 + Writer 김병호 그룹홍보팀 차장 + Photo 류병문



전국 화승자랑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고요한 일요일이었다. 평소 전국노래자랑 애청자인 장인어른이 어김없이 보고 계셨고, 띄엄띄엄 보던 난 다음 주 경남 양산편 예심을 한다는 고지 자막을 보고 말았다. 설마 우리 직원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그럼 취재 가야 할텐데... 하며 잊었던 어느 날, 밤늦게 화승R&A 사보 주재기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리 민경이가 최종 예심을 통과했어요!”

2015년 1월 17일 양산 실내체육관에서 전국노래자랑
양산편 녹화가 시작되었다. 녹화 1시간 전부터 좌석을
꽉 메운 그곳을 채운 화승R&A 인사총무팀. 그들은
오직 양산의 여신, 김민경 대리가 나오길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미리 준비해간 현수막은 이미
들썩이고 있었고, 김민경 대리 역시 대기실에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영원한 오빠, 송해 선생님의 사회가 시작되고, 무대
앞은 갑자기 35년 전으로 훌쩍 돌아간다. 1980년 11월
9일 첫 방송을 시작한 전국노래자랑. 벌써 3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하며 안방을 울고, 웃게 했던 우리의
자화상 같은 프로그램이다. 무대 앞에서 김민경 대리를
기다리는 그곳엔 이번 2차 예선에서 최종 탈락했다며
출연자들이 무대에 올라올 때마다 더 가슴 떨려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전국노래자랑이라는 깃발을 가방에
꽂고서 춤을 추는 장애인 친구도 있었다. 함께한
에디터는 아주 오래전 부산 동래구편 2차
최종예심에서 탈락했다며 추억을 되뇌었고, 동네
잔치하듯 무대 앞에서 신나게, 흥겹게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을 보면서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듯 오랜 TV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양산 특산품인 사과와 고로쇠 물로 송해 선생님을 녹인
아가씨부터 온몸을 전등으로 휘감아 터치만 하면
전국노래자랑이라는 글자가 불빛으로 반짝이는
발명품을 입고 온 아저씨까지. 양산의 명물은 죄다
모인 듯 했다. 드디어 김민경 대리 순서!
"양산의 여신, 김민경입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그녀의 뇌쇄적인 눈빛은 송해
선생님마저 후덜덜 거리게 만들었다. 아가씨의 춤과
아줌마의 춤을 비교해 감질 맛나게 보여준 데에 이어
신인가수와 중고가수의 창법 비교를 통해 좌중을
폭소케 했다. 이어 다비치의 〈8282〉를 열창했던 그녀.
화승R&A 총무팀의 분위기 메이커로서 신중할 때
신중하고, 부드러울 때 한없이 부드러운 그녀, 김민경
대리. 그녀 역시, 전국노래자랑이라는 어머니들의
오디션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고, 세대를 잊고 함께
어우러지며 양산 시민의 잔치를 함께했다.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그들의 함성은 35년 묵은
시간의 열차를 함께 달리는 기차 소리였다. 트로트
가수 김용임에서 〈안동역에서〉로 유명한 가수 진성,
〈쉬운 여자 아니예요〉라는 신곡으로 트로트 가수에
도전한 걸그룹 오렌지캬라멜의 리지, 트로트 황제
현철에 이르기까지 초청가수 또한 남달랐다.
모든 순서가 끝이 났다. 이제 남은 건 수상자 발표.
모두를 긴장하게 하는 순간 첫 번째 인기상의 주인공은
바로 그녀, 김민경이었다. 늦은 밤 500팀이 육박하는
1차 예심을 통과하고, 2차 예심에 이르기까지 조금의
긴장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국노래자랑을
전국화승자랑으로 바꿔버린 그녀의 똘끼충만한 무대!
춤추고, 노래 부르고, 상을 받으며 잠시 결혼했다는
사실마저 망각했던 그녀가 팀원들과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남편을 부른다. 그녀의 남편은 그룹공채 15기
동기이자 화승R&A SL설계개발팀 전유근 대리.
친구처럼 재미나게 살아가는 그들. 친구보다 더
친구처럼 삶을 맛깔스럽게 만들어가는 이 부부의
모습이 늘 새롭기만 하다.
김민경 대리의 사수 김정민 과장은 말한다.
"우리 민갱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이소!" 예심 신청서를
떡하니 가져와 그녀의 예심, 본심, 수상의 영예까지
인도해준 시간여행자, 김정민 과장. 이 둘의 환상의
콤비가 늘 즐겁다. 끝으로 어제 그녀의 SNS에는
화제가 만발했다. 그녀에게 당당히 팬레터가 도착한
것. 저 어딘가 한 줄기 빛이 필요한 교도소의 재소자
한 분으로부터 너무나 감동적인 공연이었다며,
감사하다는 자필 편지가 3장에 걸쳐 그녀에게
당도했다고 한다. 어디에서나 희망이 되는 이름으로
김민경, 그녀는 이미 연말결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우리의 자화상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여행을 떠난 김민경 대리.
그녀는 이곳에서 세대를 아우르며
흥이 넘치는 무대를 꾸몄다.











추억을 기록하는 방법

어떤 이는 사물을 그저 소비의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어떤 이는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사물과 인연을 맺고, 그때 그 순간의 추억을 담기도 한다. 화승R&A 기획팀 김선미 대리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다. 캐릭터 밴드를 수집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았다.



화승R&A 기획팀
김선미 대리

입사 4년 차, 이제야 화승이라는 보금자리에서 제대로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는 김선미 대리. 그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잘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힘이 불끈 솟아나는 씩씩한 화승 사람이다. 어리숙한 신입사원에서 능력 있는 김 대리로 거듭나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 중이라는 그녀에겐 평범한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는 특별한 취미가 있다. 바로 밴드 수집. 갑작스러운 상처가 났을 때 급히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은 물론이요, 천 원짜리 한 장으로도 가질 수 있다. 뭣보다 다른 사람이 상처가 났을 때 밴드를 건넨다면 '센스있는 사람'이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서 내심 흐뭇하단다.

시작은 이러했다.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다가 고향 집에 잠깐 내려왔을 때였다. 자주 베이고 까지는 딸이 안쓰러웠던 엄마가 슬며시 내민 리락쿠마 밴드. 엄마의 따듯한 마음이 담긴 귀여운 밴드에 울컥한 김선미 대리는 그 이후로 밴드만 보면 마음이 갔다고. 그때의 따듯한 기억 때문일까. 결국 지금은 새로운 밴드 출시를 오매불망 기다리며 수시로 "심 봤다!!"를 외쳐대는 중이다.



그녀에겐 수집품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에 얽힌 이야기를 모으는 것 또한 수집일 터. 취미 덕분에 생긴 에피소드도 꽤 두둑하다. 늘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밴드를 다친 사람에게 건네면 저도 모르게 뿌듯한 표정이 지어지는데, 상대방은 "내가 다친 게 좋냐?"며 버럭 화를 내 당황스러웠던 경험도 여러 번. 시커멓고 투박한 남자 동료의 손에 귀여운 캐릭터 밴드를 붙여 놓고는 혼자 빵– 터진 적도 있다.

업무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녀에게 있어 '수집'은 네버엔딩 취미일 수밖에 없다. 게임은 끝판왕을 이기면 끝나기라도 하지, 밴드는 새로운 것이 계속 나와 관심이 끝말잇기처럼 이어지고 만다. 그래서 현재 가장 아끼는 것은 헬로키티 밴드지만 카카오프렌즈 밴드가 출시된다면 언제 순위가 바뀔지도 모르겠단다. 앞으로 귀여운 캐릭터 밴드를 발견한다면 곧장 김선미 대리에게 제보하자. 해외여행을 간다면 외국 밴드도 대환영이다!

화승으로 돌아가는 4개의 시간의 門

1953년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시작된 화승이라는 이름의 우리. 62년이라는 시간은 오늘의 화승이 말해준다. 그리 머지않은 1980년 화승으로 돌아가 보자. 그때를 말해주는 4개의 오브제를 통해 그때의 흔적을 만져보자.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말처럼 작은 기록 하나가 안겨주는 추억과 기억의 교차를 만끽하자.





화승의 노래

화승인의 행동강령으로 더욱 체질개선을 했던, 화승 사람들의 합동결혼식으로 더욱 따스했던 1986년, 화승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일과의 시작을 알렸던 화승의 노래, 화승가(歌). 이 노래는 2002년 사내 그룹가 가사 공모전을 통해 새롭게 세상에 나온다. 당시 화승인더스트리 생산2팀 맹광식 사원의 응모작으로 우수상을 받았던 이 가사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 하성호 단장의 작곡으로 화승의 기상을 담은 그룹가로 오늘도 화승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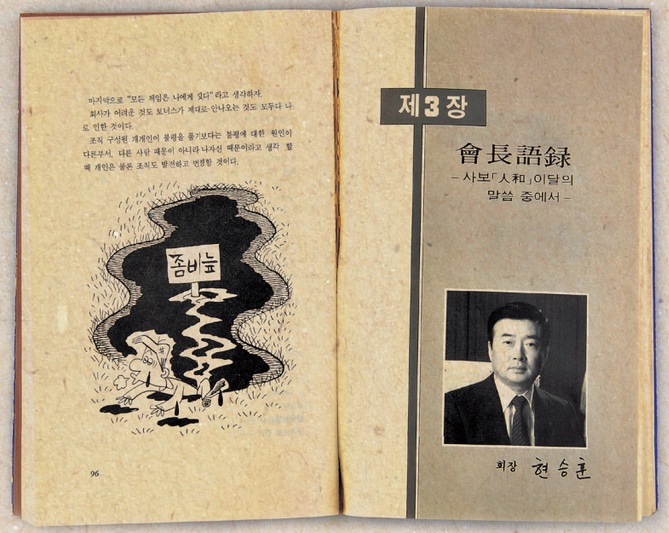




화승의 문학

문학의 저변 확대, 소비자와 유대를 위해 기성작가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987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화승그룹 장천문예상. 당시 화승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로 전국적인 문예대상이었던 장천문예상은 매년 전국 아마추어 문예인들의 등용의 문이었다. 매년 5,000부의 장천문예상 수상집을 발간해 전국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기 관과 독서운동본부에 배포했던 그 시절. 6회 〈쑥골삽화〉, 7회 〈정거장〉, 8회 〈TV〉, 그리고 91년의 〈여자〉에서 그때의 문화를 읽는다. 화승의 문학을 추억한다.







화승의 정신

먼지 쌓인 창고 안에 유독 눈에 띄는 책 한 권이 있다.
1986년 4월 화승그룹 기획종합조정실에서 발간했던
〈화승인 – 21型 人間이 되자〉. 표지를 열자 더욱
눈에 띄는 화승의 정신.

회장경영이념 –
실천 제일의 약진기업, 융화신뢰의 민주기업,
공존공영의 복지기업. 우리는 화승인
우리는 화승인 –
우리는 인화를 구현하는 화승인이다.
우리는 합리와 질서의 화승인이다.
우리는 목표를 향한 연구 실천의 화승인이다.
우리는 근면과 끈기, 참된 주인의 화승인이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에 자랑스런 화승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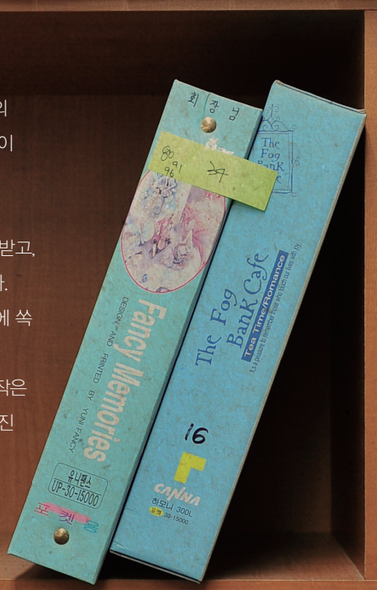
1986년 직장인들의 유형들을 Chuck Reaves가
소개했던 월간 직장인의 내용을 발췌한 것과 현승훈 회장의
경영관과 직장인에게 도움이 되는 말, 인사말 등 당시
그룹사보 인화의 참뜻을 재조명하는 의미로 발간한
〈화승인 – 21型 人間이 되자〉. 새삼 화승의 정신을, 철학을,
뜻을 다시 새겨볼 수 있다.





화승의 사진

그룹홍보팀의 장천빌딩 창고에는 40여 권의
앨범이 빼곡하다. 연도별 표식이 되어있는 이
사진들은 2년에 걸쳐 스캔을 통해 작다란
외장하드에 올차게 저장되었다. 2만 장에
육박했던 사진을 일일이 하나씩 모두 스캔 받고,
연도별 폴더로 차곡차곡 역사를 갈무리했다.
창고를 가득 메운 앨범들이 외장하드 하나에 쏙
들어간 공간의 미학.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사진들 또한 외장하드를 통해 화승그룹의 작은
기록원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화승의 사진
속에 화승의 어제와 오늘이 있다.
그리고 눈부신 내일이 함께한다.







Editor 이영진 + Writer 김병호 그룹홍보팀 차장 + Photo 류병문





그날의 축제는 끝나지 않았다

1981년 봄, 부산 온천동에서 당감동으로 이사를 갔던 내게 동양고무(화승의 전신)는 큰 성(城)과도 같았다. 다닥다닥 붙은 당감 시장의 집들 사이에 한 집 건너 모두 동양고무에 다니던 시절 앞집의, 옆집의, 뒷집의 일터였던 화승. 수많은 사연의 사람들이 모여 화승의 신발 속에 행복을 담던 그 시절 당감국민학교(현 당감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개성중학교 입학을 기다리던 1988년, 당감동을 시커멓게 물들였던 동양고무 전소. Fade Out 되었다가 In이 된 그때 화승의 그곳으로 돌아가 보았다. 어린 추억의 그곳, 여전히 끝나지 않은 축제를 목격했다.

화승삼성아파트

화승그룹 부산 사옥 장천빌딩 바로 앞 버스정류장에서 179번 버스를 타면 단번에 갈 수 있는 당감시장. 20여 분 만에 그때 그 화승, 동양고무로 돌아갈 수 있다. 당감시장 사거리에서 내려 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곳을 꽉 채운 화승삼성아파트가 보인다. 이곳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화승 신발의 역사가 풍성해졌다.

당감시장으로 향하는 주 도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몸을 뉘일 한 칸의 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시절. 저 길을 따라가면 당감시장, 그 맛의 향연이 펼쳐진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변해버린 이곳이지만 그녀들의 소리가 아직도 생생히 들린다. 고향의 부모님께 전하는 20원짜리 공중전화 안부가.



종도서, 삼익아파트

책 한 권 볼 여유는 없었지만 마음의 양식을 얻었던 책방, 종도서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당감동 랜드마크였던 삼익아파트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고, 여전히 당감동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름을 부르면 금세라도 뛰어나올 친구처럼.

골목길,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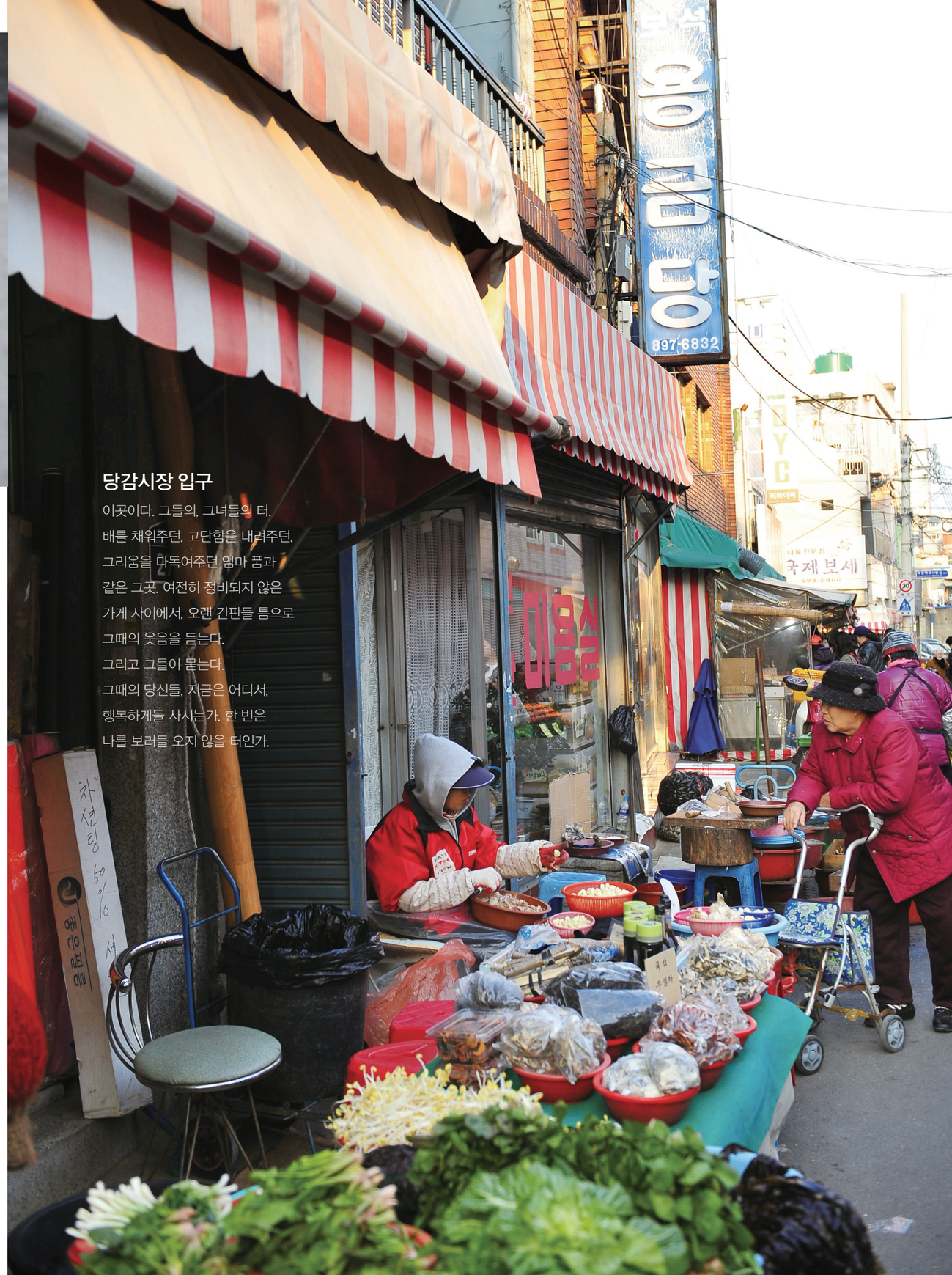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 태어나 처음 깡패를 만나 흠씬 두들겨 맞았던 이곳. 작은 자취방들
하나하나 모두가 동양고무 사람들의 작은 집. 전국 팔도의 사투리가 섞여 서울 못지않은 전국구 동네를
자랑하던 내 유년의 그곳. 이 사진을 보며 그 시절 작은 행복을 떠올릴 당신들이 그립다.

당감초등학교

시장 사람들 모두의 학교, 모두의 성역. 당감국민학교. 좁다란 입구엔 6개의 문방구가 문전성시를
이뤘고, 하나를 사면 꼭 다른 하나를 끼워주던 즐거움과 뽑기의 설렘이 가득했던 이곳. 당감국민학교는
이제 인조 잔디 가득한 초등학교가 되었다. 낯설지만 여전히 추억 가득한 유년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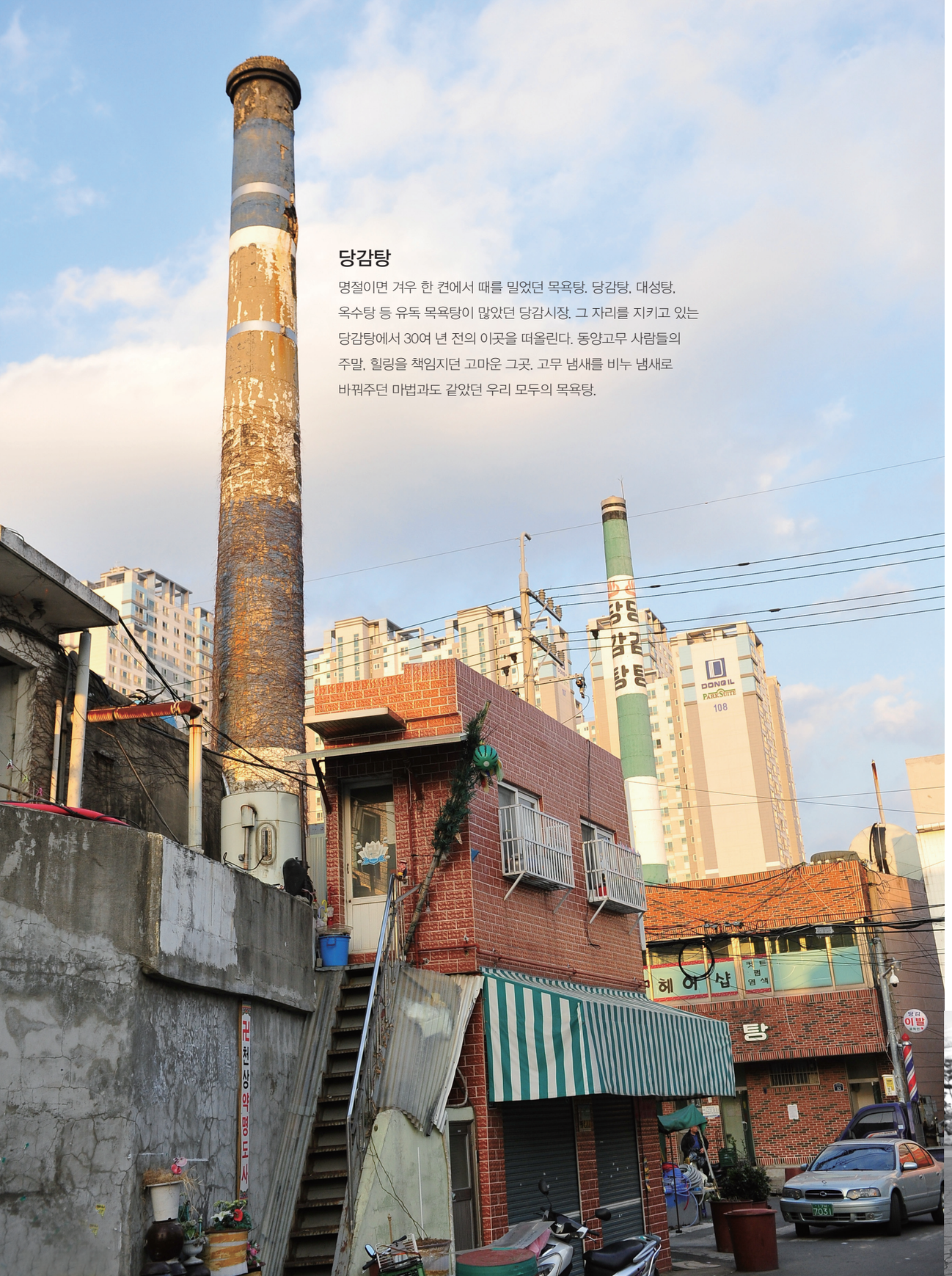






당감시장 입구

이곳이다. 그들의, 그녀들의 터.
배를 채워주던, 고단함을 내려주던,
그리움을 다독여주던 엄마 품과
같은 그곳.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가게 사이에서, 오랜 간판들 틈으로
그때의 웃음을 듣는다.
그리고 그들이 묻는다.
그때의 당신들, 지금은 어디서,
행복하게들 사시는가. 한 번은
나를 보러들 오지 않을 터인가.



당감탕

명절이면 겨우 한 켠에서 때를 밀었던 목욕탕. 당감탕, 대성탕,
옥수탕 등 유독 목욕탕이 많았던 당감시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당감탕에서 30여 년 전의 이곳을 떠올린다. 동양고무 사람들의
주말, 힐링을 책임지던 고마운 그곳. 고무 냄새를 비누 냄새로
바꿔주던 마법과도 같았던 우리 모두의 목욕탕.





복돌네 통닭

아버지와 다퉜던 어머니는 형과 나를 데리고 이곳 복돌네 통닭으로 데려와 맛있는 닭 두루치기를 사주셨다. 어머니, 당신의 볼멘소리보다 통닭의 찰진 맛이 더 기억나는 복돌네에 다시 왔다. 주방을 책임지던 그 아주머니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고, 맛을 잊지 못하는 이웃들은 빈자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옥수탕 맞은 편 순대집

화승비나 황국희 상무, 김은숙 부장이 무척이나 그리워하는 옥수탕 맞은편 골목길 작다란 할머니 순대집. 그곳엔 3년 전, 한 아주머니로 주인이 바뀌었다. 동양고무에도 근무한 적이 있는 아주머니는 운영하던 가게를 넘기고 잠시 쉬던 차에 단골이었던 순대집을 가게 된다. 쉬면 이 순대집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할머니의 물음에 "네"라고 대답했던 그녀는 곧바로 무상으로(!)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다. 동양고무 사람들의 배를, 맛을 채워주던 후한 인심의 할머니는 그렇게 마음과 맛을 이어주고, 아직도 그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 접시에서 느껴지는 그때의 맛. 여전히 맛있고, 좋은 재료만을 아낌없이 넣어 손수 만든 장에서 할머니의 맛을 느낀다. 그리고 아직도 추억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취재하느라 순대값 5,000원을 미처 지불하지 못했다. 아주머니! 책 나오면 다시 찾아갈게요!)



1988년 2월 4일 전소되기 전, 그리고 그 이후로도 화승으로 기억되는 이곳, 당감동. 월급날이면 사람에 치여 여기저기 떠밀려 다녔다는 이곳은 오늘도 여전히 축제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에서 '화승'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은 곳, '화승'이라고 하면 곧바로 알아듣는 유일한 곳. 잠시만 시간을 내면 그때의 화승으로 가장 손쉽게 떠날 수 있는 바로 이곳. 당감동의 추억은 오늘 화승의 오래된 여행 책이다.

그 시절, 함께 울고 웃었던

내 유년의 바이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처럼 감수성 풍부했던 내 유년 시절. 소싯적 바이블과 함께 울고 웃었던 덕에 '지금의 나'도 있는 것일 테다. 주인공에 빙의해 거울 앞에 선 엉뚱한 내 모습마저도 합리화시킬 수 있었던, 거장들의 예술 작품 '만화책'. 그 어떤 사이언스지나 시사 교양지보다도 권위 있었던 그때 그 시절, 내 유년의 바이블.



굿모닝! 티처

화승T&C 관리팀 박재성 대리

〈아이큐 점프〉보다 〈소년챔프〉에 더 매력을 느낄 때쯤. 〈소년챔프〉에 연재되던 〈굿모닝! 티처〉는 철없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일상을 그려 당시 중학생이던 우리 또래의 공감을 크게 이끌어냈다. 일본 만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눈도 큼직, 얼굴도 큼직해 만화를 따라 그리는 이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덩달아 나까지도 만화 그리기 동아리에 가입하게 만들었으니 말 다했다. 〈슬램덩크〉와 더불어 유일하게 전 권을 소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의 베스트 아이템.



슬램덩크

화승소재 원가관리팀 김기태 사원

액션 만화에 빠져있던 초등학교 때. 형의 책꽂이에 꽂혀있던 농구 만화가 눈에 들어왔다. 고등학생이 빨강 머리라는 말도 안 되는 설정에 다들 덩치는 어찌나 큰지, 몇 장 넘겨보다 이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 〈드래곤 볼〉과 더불어 내 유년 바이블의 쌍벽을 이루는 〈슬램덩크〉. 꼰대 감독님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속의 강인함은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나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

드래곤 볼

화승공조 품질관리팀 고용희 과장

50원짜리 동네 오락실과 친구들끼리 서로 돌려보던 만화책이 유일한 놀이였던 시절. 7개의 여의주를 모아 신룡을 소환해 나의 소원을 이루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수업시간 친구들과 돌려보다 선생님께 걸려 머리를 콩콩 맞았던 굴욕의 순간에도 손오공의 순간이동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진정 그때는, 학교에 지각했을 때나 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때마다 드래곤 볼을 떠올리곤 했다.







공포의 외인구단

화승인더스트리 소재연구팀 양정현 매니저

처음엔 스포츠(야구) 소재에 대한 관심으로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여주인공 엄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까치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 덕에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겪던 내가 조금은 진정됐던 것 같다. 한동안 헤어 나올 수 없었던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은 지금도 나를 설레게 한다. 만화 史에 있어 이현세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으니 이 바이블 선정에 작가 파워도 한몫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닥터 노구찌

화승네트웍스 기획총무팀 박규안 대리

일본 천 엔 화폐에 그려진 유명한 의사이자 생물학자 노구치 히데요. 어렸을 적 불의의 사고로 왼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음에도 성실, 끈기, 노력으로 전 세계 가장 위대한 학자가 된 그의 모습에 자극을 받았던 것 같다. 나태하거나 부정적 생각이 가득해질 때마다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만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노력뿐이라는 걸 느끼게 해 준다. '좌절하고 있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는 주인공의 말이 아직도 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반항하지마!

화승인더스트리 선행개발팀(서울) 차성호 매니저

액션, 폭력물에 빠져 한창 만화방을 드나들던 시절. 단과 학원비를 빼 써가며 열심히 만화방에 출석체크를 하던 중 내 이목을 사로잡았던 〈반항하지마!〉. 내내 오니즈카 선생님에게 푹 빠져 있다가 학원 마칠 시간쯤 공부하느라 지친 듯 터덜터덜 집에 들어가곤 했다. 그럴 때마다 수고했다며 반겨주신 어머니께 죄송했지만 만화를 보는 재미에 그 맘도 곧 사라지기 일쑤였다. 그 시절 내 동경의 대상, GTO(GREAT TEACHER ONIZUKA) 괴짜 선생님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나, 다시 돌아갈래! 나의 근현대사

매일 아침 잘 다려진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시절엔 친구가, 교실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가끔 엉뚱한 장난으로 선생님께 혼이 나도 기죽지 않던 나는 어느새 상사의 꾸지람을 두려워하는 회사원이 되었고, 교복 입은 아이들을 보면 이상하리만치 부럽다. 하루만, 단 하루만 그 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다시 돌아와 버렸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될 줄이야.
왜 내가 교복을 입고 있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잘 다녀오라며
손을 흔드시는 어머니를 보니
장난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몰래카메란가?
나 출근해야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일단 학교로 가보자.



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이까

오랜만에 교실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다.
책상도 칠판도 모든 게 다 그대로네.
그런데 갑자기 다들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뭐라고?! 오늘이 시험이었어?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아…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한 번호로 빨리 찍고 잠이나 자자.





축구는 교실에서 해야 제맛!

쉬는 시간 10분은 짧아도 너무 짧아.
흐흐, 그래도 최대한 신 나게 놀아보자.
야, 이쪽으로 패스! 패스!
그동안 갈고 닦은 내 실력을 보여주마.

어? 뭐야! 왜 공이 자꾸 가랑이 사이로 굴러가지?
이 자식들아 웃지마!
내가 일부러 피한 거라고!



이건욱! 이리 나와!

꼭 이럴 땐 나만 걸리더라.
하필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칠 게 뭐람.
사나이 자존심에 다 같이 했다고 이를 수도 없고.
다시 돌아와도 사고치고 혼나는 건 똑같네.
조용히 책이나 읽을걸….



우울한 이 내 마음 달랠 자, 그 이름 워크맨

기분도 꿀꿀한데 노래나 듣자.
우와, 이거 워크맨이잖아?
이거 사려고 몇 달 동안 매점에도 안 가고
용돈 모았었는데, 지금은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크~ 브라이언 맥나잇 형님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심금을 울리는구나.



때론 일탈도 필요한 법

흐암~ 졸려.
저 선생님 수업 지루한 건 여전하네.
눈꺼풀이 자꾸 감기는 게 도저히 참기 힘들다.
날씨도 좋은데, 밖으로 나갈까?
그래, 회자에 다녀보니까
학교 다닐 때 땡땡이치던 게 제일 그립더라.
이왕 돌아온 김에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자!



동전 하나면 충분했던

교복 입고 오는 오락실, 도대체 얼마만이냐!
동전 교환기 소리 좋고!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철권은 한 번도 져 본적 없다고.
버튼 3배속 누르기 신공을 보여주겠어.



어, 펌프다!
족보까지 그려가며 스텝도 외웠었는데.

근데 왜 아무리 밟아도
화살표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아 꿈이었구나.

어제 보고서 마무리하다가 잠들었나 보다.
이렇게나마 그때로 돌아가니까 좋긴 좋네.
하루 종일 교실에 앉아 공부만 해도
친구들과 있으면 마냥 좋던 날들이었는데….
에잇, 얼른 씻고 출근 준비나 하자.
허허, 그런데 꿈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단 말이지.

시뻘건 떡볶이 맛은 새파란 시절의 추억입니다







부산 영도, 도날드 떡볶이

즉석 떡볶이의 즐거움은 부산에서도 느낄 수 있다. 다시 도개교로 유명해진 부산의 영도대교를 지나 영도로 들어서면 자가용으로 얼마 안 가 도날드 떡볶이를 만날 수 있다. 몇 안 되는 테이블, 30년 된 허름한 분식집이지만 전국 떡볶이 매니아들의 핫플레이스로 통한다. 주방 앞면에 큼지막하게 붙은 '오직! 즉석떡볶기'라는 단호한 캐치프레이즈가 굶주림을 더욱 자극하는 듯하다. 도날드 떡볶이는 특이하게 고추장을 쓰지 않는다. 대신 해물 육수와 고춧가루로 양념을 하는데, 고춧가루 본연의 매운맛이 육수와 잘 어우러져 졸아들수록 깊은 맛을 낸다. 맵싹한 떡볶이 맛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 가게의 히트상품은 바로 '뻥크림'. 뻥튀기에 아이스크림을 듬뿍 발라먹는 메뉴로, 차가운 아이스크림과 고소한 뻥튀기의 조화가 아직 남아 있는 입안의 얼얼함을 달래준다. 가게 손님들 모두가 꼭 입가심으로 먹는다니 꼭 기억하시라.

주소 부산시 영도구 남항새싹길 9

"엄마 500원만."

500원만 있으면 방과 후 분식집으로 뛰어가 시뻘건 떡볶이 한 접시를 든든하게 먹던 시절도 있었다. 작은 가판대에 김을 모락모락 피워 맵고 달달한 맛으로 코흘리개 꼬맹이부터 성인 할 것 없이 주머니 속 쌈짓돈을 유혹하던 국민 분식 떡볶이. 〈DBT〉 독자엽서 추천으로 기획된 서울·부산 추억의 동네 떡볶이 맛에 취해보자.



주소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71길 36-17



서울 망우동, 경상도 떡볶이집

〈DBT〉 독자가 중·고교 시절 즐겨 찾던 '경상도 떡볶이집'. 망우동의 한 골목 가운데 위치한 가게로 들어가니 주인아주머니가 '갱상도' 사투리로 〈DBT〉 맛집 탐험대를 시크하게 반기신다. 이 집의 베스트 메뉴는 떡, 만두, 어묵, 달걀이 들어간 '골고루 떡볶이'. 37년째 장사를 하고 계신다는 주인아주머니는 주문이 들어오자 주방의 넓적한 냄비에 어제 뽑은 신선한 가래떡과 시뻘건 다진 양념을 넣고 바로 끓인다. 그런데 양념을 보고 있자니 보통 고추장과는 다르다. 손수 제조하신 비밀양념과 고추장을 섞어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 사용한다고 한다. 덕분에 주문과 동시에 양념장과 떡볶이 재료를 넣어 만드는 즉석 떡볶이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맛이 일품이다. 떡볶이를 졸이는 중간에 넣는 깻잎도 비결이 아닐까 싶다. 경상도 떡볶이집 아니랄까봐 사용되는 어묵은 부산 출신이며, 부산 아지매가 만든 야끼만두를 납품받아 사용한다고 한다. 주인아주머니의 넉넉한 인품만큼이나 1,500원어치의 1인분 떡볶이 양은 요새 물가치고 정말 푸짐하다.

부산 서동, 맛나 분식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빨간 양념은 어느 분식에나 잘 어울린다. 어묵, 순대, 김밥, 튀김 등 그 어디에 뿌린들 위화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부산 서동시장에 위치한 '맛나 분식'은 떡볶이보다 계란만두가 유명하다. 철판에 계란 두어 개 깨고 일반 당면보다 씹기 편한 하얀 당면을 투하한다. 그리고 여기에 밀가루 반죽을 살짝 부어 뒤집어 가며 익히면 계란만두가 완성된다. 비주얼은 만두보단 전에 가까운데 본래 만두피에 이런 방식으로 속을 익혀 만들어 먹었던 것이라고 한다. 양은 1인분에 1,000원이란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푸짐해 보인다. 여기에 간장 또는 떡볶이 양념을 끼얹어 먹으면 '미로' 같은 서동시장 탐험도 2~3시간은 끄떡없을 듯하다. 30년 전통의 맛나 분식 아주머니는 모 방송사 달인 프로그램에 계란만두의 달인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주소 부산시 금정구 서동시장길 42-4



계란만두

서울 청량리, 홍릉문구

역시 떡볶이는 하굣길에 친구들과 북적이며 먹는 게 제맛이다. 청량리에 위치한 홍릉문구(홍릉분식)는 21년 동안 주변의 초등학교를 비롯해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었다. 본디 문구점을 운영하며 분식을 팔았으나 시간이 흘러 지금은 분식집만 남아있다. 저출산 때문일까,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방과 후 언제나 찾아오는 코흘리개 손님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500원(중학생 이상은 1,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푸짐하게 한 그릇 퍼주시는 주인아주머니의 인심은 그대로다. 취재 도중 성질 급한 '초딩' 몇이 어울려와 라볶이를 주문하더니 받자마자 그냥 걸어가면서 먹는다. 입 주변에 묻은 떡볶이 양념을 보며 서로 깔깔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던 주인아주머니가 방긋 웃으시며 "이 맛에 장사하지!" 하신다. 특별한 맛은 없다.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추억을 곱씹게 해주는 것이 홍릉문구만의 비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옛날 떡볶이 한 그릇에 목숨 걸고, 우정을 나누던 그때 그 시절이 정말 그립다. 올해 동창회 2차는 학교 근처 떡볶이 가게로 가야겠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22가길 30

서울 아차산, 신토불이 떡볶이

오래된 음식점의 특징은 저마다 고유의 맛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아차산역 부근 떡볶이 가게도 저만의 특색을 가지고 40년째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 주인공은 '신토불이 떡볶이'. 서울 3대 떡볶이라 불리는 이 떡볶이 가게의 외관은 그다지 화려하진 않다. 하지만 새빨간 떡볶이 속 떡은 요즘 보기 힘든, 매우 굵은 두께다. 고춧가루의 입자가 커서 그런지 쫄깃한 밀떡 몇 번 씹어 목구멍으로 넘기면 칼칼한 매운맛이 금세 올라온다. 여기에 야끼만두를 양념에 버무려 입에 넣으면 고소한 기름 맛에 매운맛이 중화되는 느낌이다. 신토불이 떡볶이에서는 독특하게 다른 분식 메뉴 없이 오직 핫도그만 함께 팔고 있다. 케첩을 발라먹어도 되지만 이곳 단골손님들은 핫도그를 가위로 잘라 떡볶이 양념에 버무려 먹는다. 핫도그에 떡볶이 양념이라니. 기발한 아이디어와 매콤하고 정겨운 맛이 공존하는 신토불이 떡볶이 또한 강력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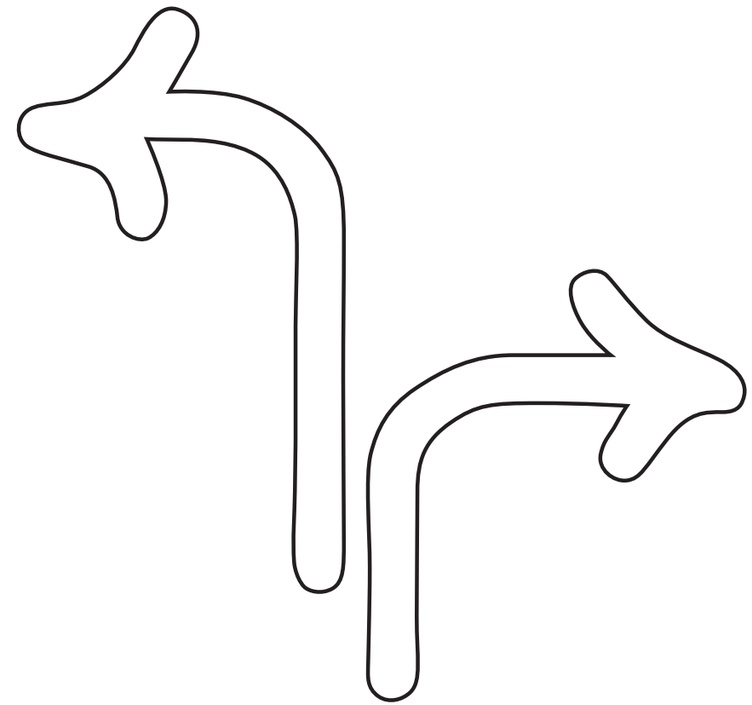


주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43길 42

길을
돌아가다

곡선 길과 직선 길,
질러가는 길은 지름길이라 좋고,
돌아가는 길은 서둘지 않아 좋다

내가 가면 길이 된다





Editor 이진우 + Photo 류병문

10초 완성
10원 초상화

좋은 그림이라고 꼭 비쌀 필요 있나요

복작복작한 이태원 거리 뒤, 이슬람 사원을 지나 한적한 거리를 걷다 보면 장재민 작가의 작업실이 나온다. '노동연구소'라 이름 붙은 이 작업실에서 요즘 그는 하나둘씩 찾아오는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린다.

"원래 프리마켓에서 10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프리마켓이 열리지 않는 날에도 작업실에 오셔서 초상화를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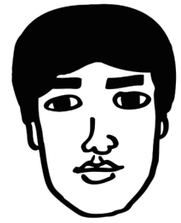
화창한 주말이면 열리는 홍대, 이태원의 프리마켓. 복작복작한 가운데 길게 늘어선 줄이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도대체 뭐길래!' 하며 다가가면 장재민 작가가 투박한 전용 종이에 유성 매직으로 슥슥~ 초상화를 그리고 있단다. 특징만 잡아 대~충 그린 그림이라 색채도, 디테일한 묘사도 없지만 자신의 초상화를 받아든 사람들은 깔깔대기에 여념이 없다.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그가 이런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건 11년 전부터였다.

"2004년에 프리마켓에서 제가 디자인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좀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해부터 대충 그리자, 부담 없이 재미있게 그려보자는 마음으로 '10초 완성 10원 초상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재미로 시작한 프로젝트지만 10초 완성 10원 초상화에는 '좋은 그림'에 대한 발상의 전환도 들어있다. '비싼 그림이 좋은 그림인가', '꼭 그림이 비쌀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 끝에 그는 좋은 가치가 돈으로 환원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규칙을 깨고 싶었단다.

"'좋은 그림'이라는 건 다양해요. 하지만 좋은 그림이 꼭 비쌀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물론 비쌀 순 있어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데 걸린 5년 동안 그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거기서 패러다임을 약간 바꾼 거예요. 훨씬 짧은 시간에, 제일 대충 그려서 싸게 팔자. 그렇다고 그 그림의 가치가 낮은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그림을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대충 그린 것 같지만 자신의 특징을 콕콕 집어낸 이 초상화를 보고 웃음을 터뜨린다.



'10초상화' 그리는 장재민 작가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까지 가장 짧은 시간 10초, 손님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은 돈 10원. 장재민 작가는 앞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의 초상화를 10초 만에 그려 10원에 판다. 머리카락부터 목 언저리까지 대강대강 그려진 일명 '10초상화'를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익살맞은 웃음이 가득하다.







‘좋은 그림’에 대한
장재민 작가의 기준은
그림을 받아든 사람들의
만족감이다.

장 작가는 ‘좋은 그림’의 기준을 사람들의 이런 만족감으로 삼았다.
실제로 프리마켓에 장 작가가 뜨면 4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인도나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 초상화 때문에 작업실로 찾아온다니 10초 완성 10원 초상화는 ‘좋은 그림’의 기준을 충족한 게 분명하다.

10년, 그 이상의 기록

장재민 작가가 이 초상화를 그린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 얼마 전에는 10주년 기념 전시회도 열었다. 이제껏 그가 그린 사람만 해도 49,000명이 넘어, 그가 초상화 종이에 찍어주는 스탬프의 숫자는 이제 50,000에 다다랐다.
“거의 5만 명을 그렸지만 아직도 그리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처음 보는 타입의 얼굴. 저렇게 긴 코는 처음 본다.
눈이 굉장히 길구나! 그냥 길기만 하면 괜찮은데 조합이 애매하면 난처해요. 특히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분이 오시면... 하하.”
10년 전과 현재, 그가 그린 초상화의 느낌은 판이하다.
처음에는 닮고 안 닮고를 떠나 자신의 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좀 더 사람답게, 상대방과 더 닮게 그리고 있다고. 초창기 그림은 눈코입만 그린 낙서 수준이었다며 웃음으로 말을 잇는다.
“제 예술관을 더 생각하다 보니 처음엔 마찰도 생겼어요. 이게 정말 본인이 맞느냐며 사람을 이렇게 그릴 수 있냐는 얘기도 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중간 점을 찾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예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치가 조금 더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나이를 먹은 거지 뭐!”
오랜 시간 같은 작업을 하며 슬럼프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너무 바빠 그런 걸 느낄 새가 없었다’는 답이 돌아온다. 그도 그럴 것이 장 작가의 대표 작업으로 보이는 ‘10초상화’는 장 작가 작업 중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단다. 요즘 그가 열중하고 있는 일만해도 서너 가지가 넘는다.
그 첫번째는 그의 작업실이 위치한 우사단 마을을 잃지 않기 위해 동네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마을의 생활사, 역사, 지리, 건물의 생김새 등을 아카이빙(파일 보관)하는 작업이다. 또 ‘노동연구소’라는 작업실 이름에 맞게 노동에 대해 연구하고 칼럼을 쓰기도 한다. 어떤 곳에 소속되어 일하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안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물론 장 작가에게서 10초상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작업인 만큼 기업이나 행사에 초청받아 초상화를 그리기도 한다. 그의 작업 내용을 듣고 있으니, 활동에 대한 회의감도, 지루함을 느낄 새도 없다는 말이 와닿는다. 뭐 어쨌든, ‘저 사람은 10원짜리 초상화 그려서 뭘 먹고 사나’했던 궁금증이 풀렸다.
장재민 작가의 목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초상화도 더 많이 그리고, 장터도 열고, 동네 신문과 지도도 계속 만들 거란다. 그는 그가 선택한 이 세계에서 좋아하는 작업에 파묻혀 살고 있다. 레이스가 길어질수록 버티고 있는 사람만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10년 동안 많은 것을 얻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우사단 마을 어느 거리 한켠의 작은 작업실에서 장재민 작가는 오늘도 자신만의 작업에 푹 빠져있다.







〈당신에게 제주〉 저자 고선영, 김형호

잠시 멈추니 또 다른 길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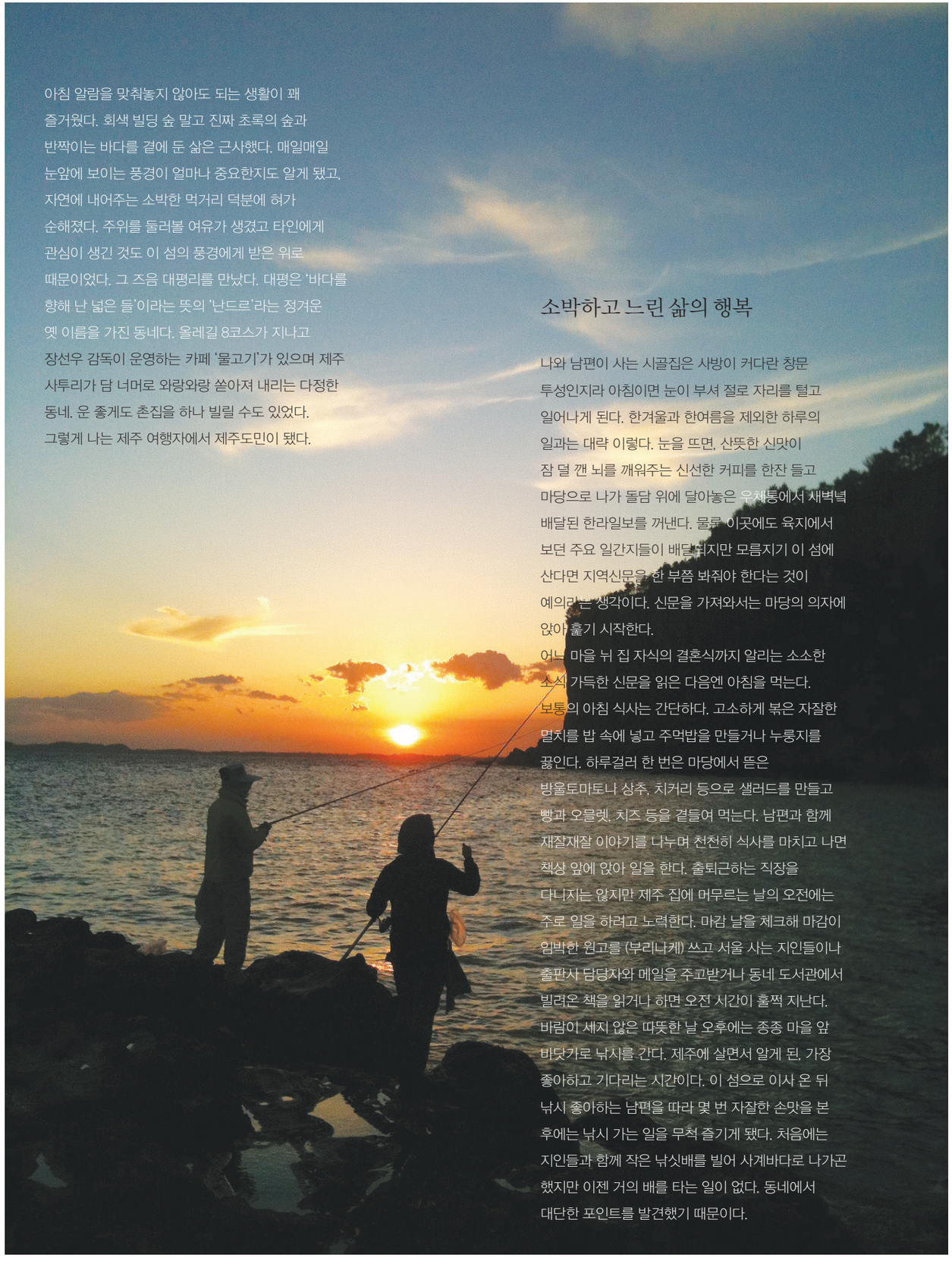
Writer 고선영 + Photo 김형호

그 길에 들어선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안덕계곡'이라 쓰인 간판을 따라 들어간 길은 왕복 1차선 도로였다. 길 옆 나무들이 어찌나 잘 자랐는지 하늘을 덮을 듯했고 나뭇잎들 사이로 간신히 햇빛 한 줌 쏟아져 내리는 그런 길이었다. 그것은 마치 뱀처럼 구불구불 요동치며 뻗었는데 언젠가 강원도의 깊은 산 속을 달리며 보았던 것과 같았다. 제주에 이런 길이 있구나. 신기해하던 중 순간, 눈앞을 가로막던 숲이 끝나고 절벽 아래 바다가 펼쳐졌다. 삽시간에 밀려온 풍경이었다. 절벽 아래 펼쳐진 초록의 밭과 옹기종기 모여 앉은 지붕 낮은 농가들 그리고 그 너머의 쪽빛 바다까지. 누군가 둘둘 말려 있던 그림 한 폭을 눈앞에서 차르르 펼쳐 보인 것 같았다.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이곳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제주 여행자에서 제주도민으로

제주에 내려온 지 벌써 다섯 해다. 잘 다니던 잡지사를 그만둔 지도 그만큼이다. 십수 년 간 기자로 일했고 그중 절반 이상을 거의 매주, 매달 국내외로 출장을 다녔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밤을 새워 마감했다. 한 달에 절반 이상은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바쁜 와중에 결혼도 했다. (하필) 동종 업계, 출장 많은 포토그래퍼 남자와 눈이 맞는 바람에 결혼 이후 함께 산 날보다 떨어져 산 날이 많을 정도였다. 지독한 만성피로가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더 이상 삶이 즐겁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다가 주르륵 코피가 흐르던 날 깨달았다. 잠깐 멈춰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말이다. 회사에 사표를 냈고 간단하게 짐을 싸 제주로 내려왔다. 그 무렵 친한 선배에게 제주 여행 책 집필을 제안받은 터였다. 6개월 동안 책을 쓴다는 핑계로 제주의 곳곳을 발이 아프도록 돌아다녔다.





아침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되는 생활이 꽤 즐거웠다. 회색 빌딩 숲 말고 진짜 초록의 숲과 반짝이는 바다를 곁에 둔 삶은 근사했다. 매일매일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고, 자연에 내어주는 소박한 먹거리 덕분에 혀가 순해졌다.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겼고 타인에게 관심이 생긴 것도 이 섬의 풍경에게 받은 위로 때문이었다. 그 즈음 대평리를 만났다. 대평은 '바다를 향해 난 넓은 들'이라는 뜻의 '난드르'라는 정겨운 옛 이름을 가진 동네다. 올레길 8코스가 지나고 장선우 감독이 운영하는 카페 '물고기'가 있으며 제주 사투리가 담 너머로 와랑와랑 쏟아져 내리는 다정한 동네. 운 좋게도 촌집을 하나 빌릴 수도 있었다. 그렇게 나는 제주 여행자에서 제주도민이 됐다.

소박하고 느린 삶의 행복

나와 남편이 사는 시골집은 사방이 커다란 창문 투성인지라 아침이면 눈이 부셔 절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된다. 한겨울과 한여름을 제외한 하루의 일과는 대략 이렇다. 눈을 뜨면, 산뜻한 신맛이 잠 덜 깬 뇌를 깨워주는 신선한 커피를 한잔 들고 마당으로 나가 돌담 위에 달아놓은 우체통에서 새벽녘 배달된 한라일보를 꺼낸다. 물론 이곳에도 육지에서 보던 주요 일간지들이 배달되지만 모름지기 이 섬에 산다면 지역신문을 한 부쯤 봐줘야 한다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이다. 신문을 가져와서는 마당의 의자에 앉아 훑기 시작한다.

어느 마을 뉘 집 자식의 결혼식까지 알리는 소소한 소식 가득한 신문을 읽은 다음엔 아침을 먹는다. 보통의 아침 식사는 간단하다. 고소하게 볶은 자잘한 멸치를 밥 속에 넣고 주먹밥을 만들거나 누룽지를 끓인다. 하루걸러 한 번은 마당에서 뜯은 방울토마토나 상추, 치커리 등으로 샐러드를 만들고 빵과 오믈렛, 치즈 등을 곁들여 먹는다. 남편과 함께 재잘재잘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나면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한다. 출퇴근하는 직장을 다니지는 않지만 제주 집에 머무르는 날의 오전에는 주로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마감 날을 체크해 마감이 임박한 원고를 (부리나케) 쓰고 서울 사는 지인들이나 출판사 담당자와 메일을 주고받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거나 하면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난다. 바람이 세지 않은 따뜻한 날 오후에는 종종 마을 앞 바닷가로 낚시를 간다. 제주에 살면서 알게 된, 가장 좋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 섬으로 이사 온 뒤 낚시 좋아하는 남편을 따라 몇 번 자잘한 손맛을 본 후에는 낚시 가는 일을 무척 즐기게 됐다. 처음에는 지인들과 함께 작은 낚싯배를 빌어 사계바다로 나가곤 했지만 이젠 거의 배를 타는 일이 없다. 동네에서 대단한 포인트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꿈을 이뤄가는 길, 제주

제주 이주가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후 제법 '관련자'처럼 보이는 내게 이런저런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 질문은 대부분 비슷했다. 어떻게 내려오게 됐는지, 와서 뭐 먹고 사는지, 언제까지 살 건지 등등. 할 줄 아는 일이 글 쓰고 사진 찍는 일이다 보니 이곳에서도 그 일이 이어졌고 두 권의 책을 썼다. 제주 가이드북 〈여행의 달인 제주〉가 여행자의 신분에서 낸 책이라면 〈당신에게 제주〉는 생활자로서, 제주에 놀러 온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매달 육지로 올라가 여전히 출장을 다녔고 여행 칼럼을 써 돈을 벌었다.

1년 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일을 벌였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불쑥 잡지를 하나 창간한 것이다. 제주매거진 〈iiin〉. I'm in island now의 약자이기도 하며 제주 말로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 '인'이다. 옆 동네 사는 전직 편집자와 전직 공무원, 포토그래퍼와 일러스트레이터 등이 참여해 만드는 제주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잡지다. 제주가 좋아 이곳에 정착한 이주자들과 제주 사람, 여행자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았다. 인쇄 매체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뒤로하고, 운 좋게도 우리의 잡지는 아직 살아있다! 계절에 한 번씩 내는데 어느덧 1년을 돌아 다시 봄호를 제작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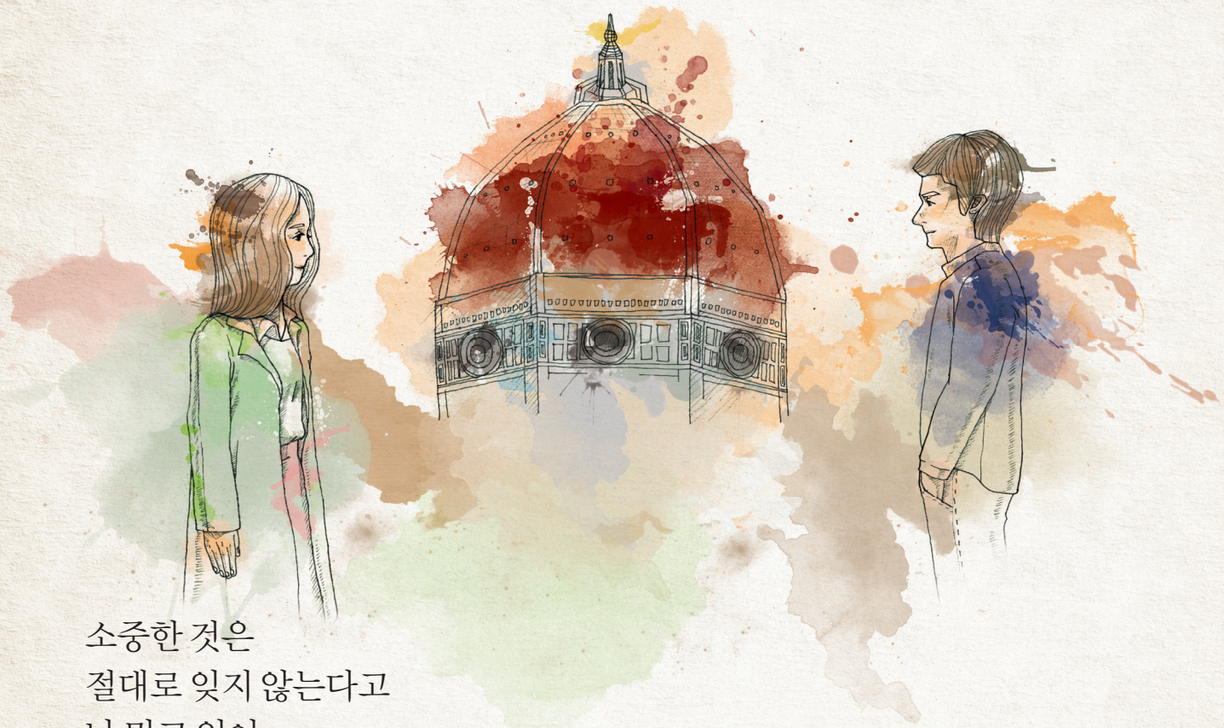


돌이켜보니 그때의 제주행은 내게 행운이었다. 제주에서의 소박하고 느린 삶에 적응하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고 행복해졌다. 도시의 친구들이 편집장을 달고, 대기업의 부장이 됐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됐다.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니 다른 이와 비교할 일도 없어졌으며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어찌 보면 처음 대평리를 찾던 그때처럼 이리저리 휘고 에둘러가는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을 내려놓고 쉬엄쉬엄 주위를 둘러보며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멋진 풍경 펼쳐지는 그곳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나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 이 시간은 꽃같이 아름다운 때이다.

인연, 돌고 도는 이야기

누군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를 알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찰나이든 긴긴 인연이든 그 사람의 흔적이 자신에게 새겨져 인생의 한 부분이 된다.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모든 인연이 소중한 이유다.



소중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난 믿고 있어

Between Calm And Passion

냉정과 열정 사이

나이가 들수록 현명한 사랑을 할 줄 알았건만 맘처럼 쉽진 않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진심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 고되다. 마음을 감싼 보호막이 점점 두터워지기 때문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남녀의 감정을 섬세하게 다룬 소설이 〈냉정과 열정 사이〉이다. 도쿄, 밀라노, 피렌체에서 10년간의 러브 스토리가 펼쳐지는 이 소설은 운명적 사랑을 위한 긴 여정을 보여준다.

서로를 진심으로 원했지만 세월이 흘러 이별하게 된 두 사람. "너의 서른 번째 생일 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장소인 피렌체의 두오모에서 만나자"는 준세이의 말을 아오이는 잊지 못한다. 열정적 사랑을 원했던 그와 더는 상처받기 싫어 냉정했던 그녀. 인생은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성립하지만 마음은 그 사람이 있고 싶어하는 장소에 머문다.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어도 마음은 한곳으로 향했기에 인연은 돌고 돌아 이뤄졌다. 이렇게 냉정과 열정 사이에도 사랑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두 남녀의 짧은 만남을 다룬 〈비포 선라이즈〉, 그런 커플이 재회하는 내용을 담은 〈비포 선셋〉에 이어 현실적인 사랑을 표현한 〈비포 미드나잇〉은 수많은 커플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영화다. 유럽 여행 중 기차에서 만나 잊을 수 없는 데이트를 하고 기약 없이 헤어진 셀린느와 제시는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재회한다. 긴 시간이 지난 만큼 그들은 다른 사람과 몇 번의 연애 끝에 현실적인 어른이 된다. 그러면서도 서로의 애정 어린 마음을 알아가며 성숙한 사랑을 키워나가는 둘. 아마도 대개의 영화는 여기서 멈출 것이다. 해피엔딩으로 말이다.

잔인(?)하게도 감독은 〈비포 미드나잇〉에서 "현실은 이런 거지. 사랑한다면 일상의 지긋지긋한 의무도 져야 해"라며 권태로운 중년 부부를 보여준다. 풋풋한 사과 같던 셀린느는 뱃살이 넉넉한 아줌마가 됐고 제시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사랑은 함께 늙어가는 인생의 한 걸음'이라는 증거다. 환상은 사라지고 젊음은 추억이 된다. 그리고 일상에 메여 사는 남녀는 현실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서로 미워하며 원망하다가도 문득 키스하며 설레는 모순된 행동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다.

Before Sunrise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진짜 삶이야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사람들로 붐비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백화점. 존과 사라는 각자의 연인에게 줄 장갑을 손에 쥔다. 하지만 문제는 남은 장갑은 딱 한 세트고 동시에 둘이 잡았다는 것. 이런 해프닝 속에서 서로에게 첫눈에 반한 존과 사라는 데이트를 한다. "전화번호를 교환하면 어때요?"라는 존의 물음에 "운명은 미래에 맡기죠"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라. 그녀는 책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헌책방에 팔았으니 이를 찾으면 다시 만나자고 한다. 거기에다 존의 연락처가 쓰인 지폐로 솜사탕을 사고는 이 돈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면 연락하겠다는 당돌한 제안까지 한다.
이 정도면 스쳐 가는 인연이라고 여길 법도 하지만 7년이 흐른 뒤에 존은 기적처럼 사라의 연락처가 적힌 책을 손에 쥐게 된다.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만난 둘은 처음 만났던 그때의 풋풋한 감정을 느끼며 서로를 향해 미소 짓는다. 삶은 이처럼 우연한 행운, 세렌디피티(Serendipity)의 연속이니 존과 사라처럼 인연의 기회가 온다면 절대 놓치지 말자.

세렌디피티,
이건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예요

세렌디피티



인연이면 어떻게든 만나겠지

첨밀밀



이토록 아련한 엔딩이라니. 1995년 뉴욕. 인파를 헤치며 걷던 이요는 쇼윈도 속 TV에서 중화권 인기가수인 등려군의 사망 소식을 접한다. 가수의 대표곡이자 평소 좋아했던 〈월량대표아적심〉이 흐르자 이요는 가던 길도 멈추고 멍하니 선다. 구슬픈 노랫소리를 듣고 이곳에 온 사람이 또 있으니 그녀의 옛 연인 소군이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먼 타국에서 재회한 둘은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바라본다.
이요와 소군의 인연은 1986년 홍콩행 열차에서 시작된다. 서로의 등을 기대며 졸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미 인연이 시작되었던 것. 다시 홍콩에서 만난 그들은 타향살이의 고됨을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한다. 하지만 소군에게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약혼자가 있다는 것과 이요의 성공하겠다는 야심이 둘 사이를 위태롭게 만든다. 이런 간극을 좁히지 못한 둘은 10년 동안이나 이별과 우연한 재회를 반복한다.
〈첨밀밀〉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담백하게 인정하는 동시에 '인연이면 다시 만난다'는 낭만을 말한다. 하기야 사랑에 울어본 어른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모든 사랑이 영원하지는 않으며 운명이란 단어가 얼마나 꿈결 같은 소리인지. 그럼에도 인연을 믿고 싶은 쓸쓸한 밤이면 이 영화가 생각난다. 소군과 자전거를 타며 등려군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앳된 얼굴의 이요를 보기 위해서.

Writer 심일욱 그룹홍보팀 대리 + Photo 류병문

승진하고 발견한

숨겨진 연기본능

2015년 시행된 화승그룹 승진자 교육은 지금까지의 과정들과 달리 조금 특별했다. 승진으로 인해 앞으로 회사에서 생길 변화를 팀별로 연극을 만들어 본 것. 예술 심리학과 경영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교육 콘텐츠를 기업 교육에 접목한 에이루덴스의 프로그램이 화승그룹 대리/과장 승진자 교육에 함께했다.



회사원이라면 느끼는 몇 가지 큰 즐거움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승진'이 아닐까 싶다. 더욱이 통계적으로 회사원들은 첫 승진의 기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직책이 바뀌고 월급이 오르며 무언가 좋은 변화가 생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늘어나는 책임감에 긴장감도 늘어난다.

이번 취재 대상은 대리 승진자(2차수) 인원들이었다. 지난 2013년 〈DBT〉 가을호에 등장했던 '영계' 사원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졸음을 참던 예전 교육과는 달리 우리의 '대리님'들은 쉴 새 없이 토론하고 움직이는 프로그램에 푹 빠져있었다. 특히 입사 후 지금까지 회사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에는 열띤 토론이 오고 갔다. 이렇게까지 열성적인 직원들이었단 말인가. 승진을 했지만 아직은 막내를 벗어나지 못해 업무 폭풍에 시달린다는 대리님, 후배가 생기면서 책임감이 늘어나 부담이 커졌다는 대리님, 결혼 준비가 한창인데 회식과 접대가 잦아 다이어트를 못한다는 대리님 등 수 많은 사연이 공유되며 개선사항을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고민을 통해 개선 방안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니 연극배우를 겸하고 있는 강사들이 조별로 이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연극 시나리오로 탄생시켰다. 이윽고 분장에 들어가고 연습을 시작하는 배우들. 한 명도 빠짐없이 각각 역할을 맡아 잠깐의 연습시간을 가지곤 조별로 돌아가며 무대에 올랐다. 동물, 여장, 취객, 상사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탄생된 캐릭터들은 화승그룹 대리 승진자들의 공감 라이프를 익살스럽게 재현하고 개선방안까지 재미있게 알려주는 등 무대를 지켜보는 모두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에이루덴스 김병태 이사는 지금껏 기업에서 약 1,000회의 연극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단 한 건도 똑같은 시나리오가 없었다고 한다. 즉흥적이지만 실제 각 회사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야기들로 시나리오가 구성되고 참가자들이 함께 토론한 개선점 역시 조직별로 다르다 보니 연출이 똑같을 수가 없는 법.

화승그룹 승진자 교육은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연극무대를 보며 강의를 하는 강사들도 더욱 힘이 나는 교육이었다고 전했다.

















'승진'
직책이 바뀌고 무언가 좋은
변화가 생길 것 같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책임감에
긴장감도 늘어난다.



2015 화승그룹 **교육 로드맵**

지난해에는 교육 트렌드의 흐름을 읽고,
최적화된 교육으로 화승그룹 교육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2015년에는 현재의 교육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올해도 3년째 맞이하고 있는 그룹교육. 지난 2년간 시행되었던 그룹교육을 반추해 볼 때, 이제 그룹교육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2015년의 주요 핵심 사항은 정착화의 단계를 넘어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쉽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구조화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구조화된 HRD의 지원 환경 및 실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그룹은 조직구조의 변화 및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 다양화로 인한 카오스(chaos)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지원환경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룹 비전, 목표 이해 및 설정을 통한 조직변화와 성과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천 활동의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현장성과 지향 및 구성원의 경력개발과 성장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고경영진의 니즈와 더불어 바람직한 조직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소통을 통한 조직 내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금년도 그룹교육은 세 가지 주요 방향을 바탕으로 수립하였다. 우선 소통 프로그램 및 전 구성원 성격(행동)유형 검사를 통한 쌍방향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조직성과와의 효과검증을 시도할 것이며, 계층에 맞는 리더십 모델을 도출하여 계층별 리더십 Pipe-line을 구축하려 한다. 세 번째로 구성원의 경력 개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기반 직무분석을 통해 단계별 직무 전문가 양성 및 현장 밀착형 교육체계 수립 시 활용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올해 상반기부터 그룹에 필요한 다양한 HR 제도 도입에 맞추어 그룹교육과의 컨버전스를 통해 선진적인 그룹 HR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화승을 소통으로 꽉 채우는 일, 이것이 올해 그룹교육의 핵심이다.





■ 2015년 그룹교육 체계도

직급	필수 (2학점)			선택 (1학점)				핵심인재
	리더십 역량	계층 역량		공통 역량	소통 역량	직무 역량		
부장		신사업 성장동력	조직관리	HS MBA	2015 트렌트 분석 (서울/부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영미/중화)	소통역량 Ⅲ	사내강사세미나 / 면접관 양성
차장	차장 승진자 HS WAY	전략 및 정책수립	코칭스킬				협상스쿨 Ⅱ	
과장	과장 승진자 HS WAY	문제해결력 강화 / 성과관리 프로세스						
대리(계장)	대리 승진자 HS WAY	경력개발과 경력설계 / 전략적 기획	소셜 네트워크 / 하이 퍼포머				협상스쿨 Ⅰ	
사원	사원 HS WAY	업무수행 스킬 업 / 비즈니스 문서작성	슈퍼 팔로워					

기업회계기초 / 재무회계실무 / 협상스쿨 / 영업관리 실무실전 / 생산관리 프로세스실천 / R&D 프로세스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캠프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

지난 2월 28일~3월 1일, 경기도 양주 딱따구리 수련원에서는 장애·비장애 아동 형제들의 '엄마'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1박 2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제12회 세계예술치료협회(WATA) 동계 캠프에서는 행사 속 언제나 조연이었던 아이들의 부모, 그중에서도 '엄마'가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었다. 〈Special Party for My Special Mom〉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캠프에서는 늘 가족의 눈과 손이 되어주고 있는 어머니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부모가 아닌 부부, 엄마가 아닌 여자가 되어보다

최근 모 제약사 피로회복제 광고에서는 '가족끼리 왜 이래'라며 애정표현이 서먹해진 부부의 일상을 표현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냈다고 한다. WATA 캠프에 참가한 부모님들도 아이를 낳고 달콤했던 신혼의 애정행각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는 피로회복제 대신 커플 요가 시간을 마련했다. 간만에 부부끼리 등을 기대거나 손을 맞잡고 서로를 당겨주며 건강을 함께 챙기는 시간을 가진 부모님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자 곳곳에서 자꾸 폭소가 터져 나온다. 눈 마주치면 싸우기 바빴다는 우리 부모님들은 커플요가를 통해 오랜만에 서로 교감을 나누며 행복한 비명을 잔뜩 질렀다.

또한 엄마들을 위한 메이크업 특강시간도 가졌다. 마지막으로 했던 풀메이크업이 언제였던가. 캠프에 참가한 어머님들은 본인이 아름다워지기보단 가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 메이크업할 새도 없단다. 소싯적 꽃 같은 미모로 남편을 비롯한 여러 남자 울렸을 우리의 엄마들. WATA에서는 이런 소싯적 엄마들을 위해 전문 메이크업 강사를 초빙해 억척 아줌마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의 변신을 꾀했다. 비록 엄청난 변신은 성공치 못했지만 알짜배기 메이크업 정보를 '득템'할 수 있었던 엄마들에겐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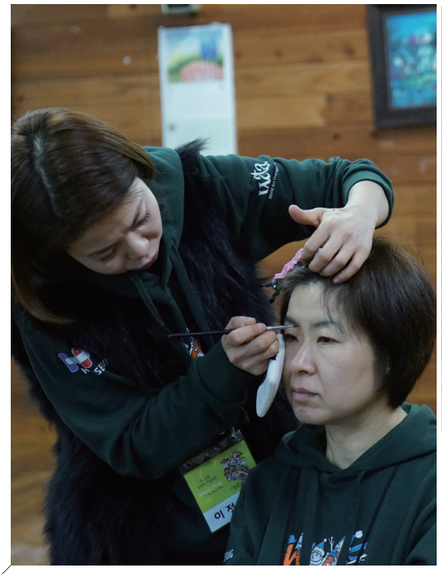
생각의 전환을 이끄는, 특별한 프로그램 플레이백 시어터

이번 캠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프로그램은 연극 치료 기법의 하나인 플레이백 시어터(Playback Theatre). '다시 돌아가서 재연해보다'라는 의미로 아이와의 지난 에피소드를 제3자(배우)의 연극을 통해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다시 보면서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치료 프로그램이다.

비장애아동과는 달리, 장애아동을 훈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성재 어머니의 에피소드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평소 국기에 관심이 많고, 태극기를 좋아하는 성재는 거리에서 파는 태극기를 보고 엄마 몰래 지갑에서











비장애아동과는 달리, 장애아동을 훈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엄마가 되기란 정말 쉽지 않다.



만 원을 꺼내 태극기를 샀다. 남의 지갑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따끔한 훈육이 필요했던 어머니는 가슴 아팠지만 성재를 모질게 혼을 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이번 플레이백 시어터를 통해 성재 어머니는 잠시 잊고 있었던 그날의 성재 마음속을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었다. 태극기를 몰래 사기까지 겪었던 성재의 갈등, 평소 천사 같기만 하던 사랑하는 엄마에게 혼이 나는 성재의 슬픔을 연극으로 지켜본 성재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많은 부모님들 또한 속상함에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의 일인양 가슴으로 울었다. 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때론 심하게 혼을 내지만, 그만큼 후회와 슬픔이 잇따르는 어머니들의 속마음. 엄마가 되기란 정말 쉽지 않다.

세계예술치료협회는 1년 중 겨울과 여름 총 2회의 캠프를 가진다. 두 번 모두 장애·비장애아동 형제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특화되어있지만 계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여름 캠프가 뛰어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한 캠프라면 저마다 다양한 사정이 있는 부모님들이 모여 본인의 생각, 타인의 좋은 사례를 토론하며 희망과 감동을 공유하는 겨울 캠프는 부모를 위한 캠프라고 할 수 있다. 아이는 물론 부모들에게도 치유와 희망을 선물하고자하는 세계예술치료협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www.hwaseunggroup.com
화승그룹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화승그룹이 공식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지난 1월 26일 오픈된 화승그룹 홈페이지는 Grid(격자무늬 나열식) 형식의 콘텐츠 배치로 더 쉽고 빠르게 정보를 만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기존의 홈페이지가 이미지 위주였다면, 이번 홈페이지는 화승그룹 CI를 상징하는 컬러(파랑, 빨강, 검정, 회색)를 모티브로 따뜻한 문구들과 함께 꾸며지는 등 감성적인 콘셉트로 기획되었다. 기술 부문의 '생활 속의 화승', '한눈에 보는 화승'은 화승그룹의 주요 사업군의 제품들을 보여주며 고객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람 36.5C의 '화승人사이드'에서는 화승의 숨은 인재를 보여주는 코너를 구성해 그룹의 인재상과 기업문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화승그룹 홈페이지는 이 외에도 현승훈 회장과 직원들이 교감할 수 있는 화담(和談 : 회장님의 편지), 그룹 사회 공헌, 직원 복지를 위한 공간 등 다채로운 부문들로 구성되었으며 PC·휴대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등)등 전 매체에 따라 화면이 조절되는 반응형 웹 서비스로 그룹을 한눈에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이바지합니다
화승R&A, 무역의 날 3억불탑 수상



지난 12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51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화승R&A 백대현 사장이 3억불탑을 수상했다. 1978년 창업 이래 자동차용 웨더스트립(창틀고무), 호스 등 자동차용 고무 부품 및 조선기자재를 생산해 온 화승R&A는 매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 품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 경쟁력을 견인했다. 미국, 중국, 유럽을 비롯한 일본에까지 수출을 확대한 화승R&A는 작년 중반기부터 올해 중반기까지 3.9억불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매년 성장을 이어왔다. 인도 첸나이, 중국 태창, 북경, 미국 앨라배마, 터키 현지법인의 생산 현장은 물론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디트로이트 사무소 운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며 국내·외 유명 자동차 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이날 3억불탑을 수상한 화승R&A 백대현 사장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세계를 감동시키는 기술로 화승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리겠다. 세계를 무대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NEWS



화승그룹

사랑 나눔의 실천 –

올해도 '2015 화승이랑'과 함께하세요!

화승그룹 직원 복지 나눔 프로젝트 2015 화승이랑이 시작되었다. 부산 경남 계열사 30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2015 화승이랑은 주말농장 형식으로 임직원들을 위한 '복지'와 주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이 결합한 형태의 프로젝트로서 2014년, 첫 씨를 뿌렸다. 화승이랑은 임직원들이 직접 파종에서부터 재배까지 참여해 수확물은 계열사 식당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주변 불우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등 사랑 나눔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5 화승이랑은 3월 2일 직원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화기애애(和氣愛愛) 2 –

회장님이 쏜다!



화승그룹의 기운을 돋우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직원 사랑 복지 캠페인 '화기애애(和氣愛愛) 2 회장님이 쏜다'(이하 화기애애 2)가 3월 2일 공모를 시작했다. 작년 6월, 사연 공모를 통한 특별 휴가와 휴가비(항공권 포함)를 포상한 '화기애애 1 회장님의 선물'에 이어 올해 화기애애 2는 현승훈 회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제시하는 단어에 가장 적합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낸 팀에게 회식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재탄생되었다.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매달 새로운 주제로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인당 10만 원, 팀별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매달 2팀씩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화승소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

대리점 워크숍 개최

화승소재는 지난 2월 6일 소재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팀장 18명과 대리점 대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리점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대리점별 2015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고, 특히 사업군별 테마 사업 전략을 선정해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2015년 소통으로 출발한다 –

협력사 간담회 개최

화승소재는 지난 2월 11일 소재 대회의실에서 협력사 간담회를 가졌다. 임원 및 팀장 18명과 협력사 대표 7명이 참석하여 대표이사의 업무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군별 테마사업 전략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본사–협력사 간 의견교환을 통해 상생경영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화승엑스윌

One for all, All for one –

2015 워크숍 개최

지난 12월 12~13일까지 1박 2일 간 화승엑스윌은 양산 에덴벨리에서 2015년 사업계획 워크숍을 개최했다. 변수강 대표이사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2014년 실적 및 2015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전망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변수강 대표이사는 "같이 마음을 모아 상대방을 배려하며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미래수익 창출을 위한 신시장 및 신사업 발굴, 수익형 아이템 개발'을 강조했다.



화승인더스트리

새해의 시작은 성실 –

2015년도 시무식 개최

지난 1월 5일 화승인더스트리 아산공장 복지관 대강당에서 2015년도 시무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3년 개근, 1년 개근, 1년 정근상이 시상되었는데, 기능직 사원 중 90%에 해당하는 사원이 정·개근상을 수상하여 직원들의 애사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이날 시무식 마무리에는 임직원 상호 간 덕담을 주고받아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함께하지 않지만 함께합니다 –

투병 중인 前 사우에게 모금액 전달

2006년 퇴사한 한 사우가 항암치료를 받으며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화승인더스트리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25일 총 773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많은 임직원들의 관심과 사랑이 전해지면서 투병중인 옛 동료는 더욱 힘을 내어 적극적으로 항암치료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HWASEUNG

NEWS

그룹 임원 인사

승진

상무이사 → 전무이사 HSD : 김광현

이사 → 상무이사 ㈜화승네트웍스 : 임봉수, HS VINA : 황국희

이사부장 → 이사
㈜화승네트웍스 : 전용식, ㈜화승R&A : 안희경
㈜화승R&A : 권오희, ㈜화승T&C : 김태균
HSI AUTO : 황기영, HSAA : 이명식, HST : 김성회

부장 → 이사부장
HS VINA : 김재필, ㈜화승T&C : 이재욱, HSB : 박수길

전보 및 겸직

백대현 사장
㈜화승R&A 각자대표이사 사장
(HST, HSB, HSAA, HSI AUTO, HSTR 겸직)
→ ㈜화승R&A 각자대표이사 사장 (㈜화승R&A 영업총괄본부장, HST, HSB, HSAA, HSI AUTO, HSTR 겸직)

강윤근 부사장
㈜화승R&A 영업총괄본부장 → 회장실 감사실장

이영주 상무이사
㈜화승R&A 구매본부장 (㈜화승T&C, ㈜화승공조 겸직)
→ ㈜화승R&A 구매본부장 (㈜화승T&C, ㈜화승공조, ㈜화승소재 겸직)

이정두 전무이사
㈜화승T&C 각자대표이사 전무,
(㈜화승공조 대표이사, ㈜화승R&A 생산본부장/기술연구소장 겸직)
→ ㈜화승T&C 각자대표이사 전무, (㈜화승공조 대표이사)

최요휘 전무이사
㈜화승네트웍스 통합구매본부장, ㈜화승소재 구매 담당
→ ㈜화승네트웍스 영업총괄

전용식 이사
㈜화승네트웍스 통합구매, ㈜화승R&A 구매 담당
(화승T&C,화승공조 겸직)
→ ㈜화승네트웍스 통합구매, ㈜화승R&A 구매 담당
(화승T&C,화승공조,화승소재 겸직)

김성회 이사
HST 관리담당 → HST, HSB, HSR 관리총괄

박수길 이사부장
HSB 관리담당 → HST, HSB, HSR 관리담당

COMMUNICATOR

화승그룹총괄 홍보팀 김병호 차장
홍보팀 박치선 대리, 심일욱 대리
화승R&A 황지회 (기획팀 사원)
화승소재 임상호 (기획원가팀 대리)
화승공조 조인희 (경영관리팀 대리)
화승T&C 박재성 (관리팀 대리)
화승네트웍스 박규안 (기획총무팀 대리)
화승엑스윌 박지현 (영업지원파트 대리)
화승인더스트리 김연식 (총무팀 매니저)
미국 HSAA 박강찬 과장
베트남 화승비나 정영섭 과장
중국 HSD 김명호 대리
중국 HST 김성우 과장

남들에겐 이상해도

내겐 마성의 그것



전 막장 드라마에 푹 빠져있답니다. 남들에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전 드라마에 몰입해 주인공 앞에 펼쳐진 스펙터클한 세계를 간접 경험하는 것이 꽤 재밌습니다. 드라마가 아니면 어디서 경험해 보겠어요. 어찌나 집중해서 보는지 드라마가 끝나면 온몸이 뻐근하네요.

•최정욱

몇 달 전 김치 담그기 자원봉사 때도, 며칠 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때도 그랬어요. 열심히 봉사한 대가는 고난스레 몸살로 돌아오네요. 하지만 이 몸살은 세상 최고의 기쁨과 행복인 것 같아요!

•강영숙

결혼 후, 이상하게 재활용품 수거장에 기웃거리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쓰다 버린 꽤 괜찮은(?) 물건을 발견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가져온 물건 대부분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리폼하고 있어요. 예쁜 물건으로 바뀌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 된답니다.

(* 이소원님이 추천해주신 분식 맛집 서울 중랑구 경상도 떡볶이집을 〈DBT〉 66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소원

저는 직접 뜨개질한 옷들을 좋아해요. 남들은 그리 귀찮은 일을 왜 하느냐지만 한땀 한땀 직접 뜨개질하고 다 완성됐을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옷이 완성되기에 뜨개질을 멈출 수가 없어요.

•박차영

지금은 쓸모가 없는데도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물건들을 모아두고 있어요. 한 번씩 모은 물건들을 보면 그때의 추억이 아련한 기억으로 떠올라 도저히 버릴 수가 없네요.

•왕채연

그녀는 평소에 똑똑한 것 같아도 의외로 백치미가 있지요.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듯하지만 마무리는 항상 흐지부지.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그녀의 백치미는 저에겐 최고의 매력으로 다가온답니다.

•강주찬

20여 년 전부터 계속 쓰고 있는 구형 폴더폰. 남들은 다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정보검색, 게임, 메신저에 매달리지만 저는 기능이 없는 휴대폰 덕분에(?) 창밖을 보거나 책을 펼쳐 듭니다. 모두가 구식이라지만, 때론 구식이 빛날 때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네요.

•윤정자

남자들이 지나가면 손만 보게 되네요. 손에 힘줄이 예쁘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늘고 긴 손보다 두껍고 큰 손이 좋아요. 얼굴보단 손을 보는 제가 그렇게 이상한가요~?

(DBT : 아니오. 희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장미향

30년 전의 어린 나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칼싸움하고 딱지치기도 하곤 해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남들 보기에 무서울 만큼 신나게 놉니다.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아이랑 친구 같은 엄마가 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송지영

고백하기 창피하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도 콧구멍을 자꾸 파게 돼요. 불결하다는 것쯤은 알지요. 하지만 가끔 커다란 코딱지를 파냈을 때의 그 쾌감과 희열,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에 끊질 못하겠네요. 식사 중이셨다면 죄송합니다…

•전호재

■ 2014년 화승그룹 사보 〈DBT〉 겨울호 독자엽서 당첨자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권

김세진(인천시 부평구 안남로), **김현영**(경남 김해시 삼정동), **김원**(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이현정**(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연수남길), **박영돈**(경북 상주시 서성동)

우수 독자엽서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월간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의 행운이 주어집니다.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

최정욱(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강영숙**(인천시 부평구 굴포로), **이소원**(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로), **박차영**(전북 남원시 월락동), **왕채연**(전남 여수시 광무5길), **강주찬**(부산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1번길), **윤정자**(전남 순천시 서면 입석길), **장미향**(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송지영**(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만어로), **전호재**(경기 의정부시 회룡로)

독자엽서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이 사은품으로 발송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1,500여 개 가맹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드리오며,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은 2015년 3월 31일까지 051-850-703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에는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